

雲門

불기 2567년

겨울호

통권 제166호

雪門寺僧伽大學





구름문을 펼치다

- ◎ 다시 돌아오지 않을 치문의 마지막 계절이기에 아쉽고 기대됩니다. / 치문반 정건
- ◎ 겨울 겨울 겨울. 서리냄새, 눈냄새, 반짝이는 밤별냄새. 겨울이 좋다. / 치문반 해묵
- ◎ 계를 받은 후로 흘러간 첫 일 년의 시간은 생애 어느 때보다 충만합니다. / 치문반 정우
- ◎ 번뇌즉보리煩惱即菩提. 매순간 번뇌가 보리로 발하길. / 사집반 삼우
- ◎ 알록달록하지 않아도 좋아요. 겨울은 겨울 그대로 아름답습니다! / 사교반 보명
- ◎ 한 해 동안 쌓인 나의 염심染心 하얀 눈으로 지워질 수 있기를~ / 사교반 덕운
- ◎ 털옷 입은 목련, 눈 덮인 장독, 빨간 불티 톡톡한 아궁이가 이 겨울을 낙낙하게 장엄합니다. / 사교반 선혜
- ◎ 사람도 자연도 쉬어가는 겨울. 우리도 한 템포 쉬면서 돌아볼 시간을 가져보아요. / 사교반 도솔
- ◎ 화엄세상 펼쳐진 운문도량 침! 은혜롭습니다 / 화엄반 정연
- ◎ 지금 이 순간 나무아미타불… / 화엄반 범행
- ◎ 일편무위진묘향一片無爲眞妙香을 옥로중玉爐中에 꽂아놓고… / 화엄반 영원

雲門

목차

- | | | |
|----|----------------|--|
| 02 | 호거산 운문사 | 구름문을 펼치다 |
| 04 | 죽림현 | 사자빈신 비구니의 법문 명성 |
| 06 | 수행, 그 속에 깃든 행복 | 기르침, 배움 그리고 다짐 등호 |
| 08 | 교수논단 | 三藏에 나타난 師弟偷理 考察 ① 양덕 |
| 13 | 想 | 不生不滅 혜성 |
| 14 | 외부기고 | 붓다, 히어로의 일생 양경수 |
| 16 | 선배탐방 | 스님들의 가장 큰 배경은 수행력
- 26회 총동문회장 동언스님 탐방기 - 덕운 |
| 21 | 학인논단 |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에 대한 기본적 이해 ③
- 「화엄경청랑소華嚴經清涼疏」 중심으로 독해하기 - 진하 |
| 24 | 수행의 두레박 하나 | The Whole World is a Single Flower
세상은 한 송미 꽃 世界一花 혜송 |
| 28 | 수행의 두레박 둘 | 불교의 문화콘텐츠 포교 영원 |
| 31 | 풍경소리 | 아름다운 그대, 幻이여 인성 |
| 32 | 특별기고 | 재미있는 부처 이야기
- 제5회 법계문학상 수상소감 - 혜월 |
| 34 | 차례법문 | 술 한 번에 대겸 |
| 38 | 운문, 운문인 | 심기일전心機一轉 편집부 |
| 40 | 이 한 권의 책 | 『생각의 탄생』을 읽고 태감 |
| 43 | 화랑동산 | 선배님들을 떠나보내며… 혜건 |
| 44 | 운문만행 | 그대들은 비행기를 타고 인도를 잘 다녀왔구려! 서쪽 |
| 48 | 운문논평 | 대중 스님들은 화합하십니까? 편집부 |
| 50 | 운문소식 | |
| 51 | 등불 | 설산수도상雪山修道相 |



사자빈신 비구니의 법문

명성 / 운문사 회주



화엄경 입법계품에 선재동자가 문수로부터 발심하여 남방으로 110성을 지나가면서 53선지식을 친견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인 사자빈신 비구니의 법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재동자는 사자빈신 비구니가 모든 보배나무 아래 놓인 사자좌에 앉아 있음을 보았습니다. 몸매가 단정하고 위의가 고요하며, 마음의 때가 없음이 깨끗한 연못과 같으며, 세상 법에 물들지 않음은 연꽃과 같으며, 마음에 두려움이 없기는 사자왕과 같고, 깨끗한 계율을 보호하여 흔들리지 않음은 수미산과 같으며, 여러 중생의 번뇌를 덜어 줄은 설산에 있는 전단향과 같으며, 모든 선근을 길러 줄은 기름진 밭과 같았습니다.

이때 선재동자는 사자빈신 비구니의 부사의한 법문을 듣고 합장하고 서서 여쭈었습니다.

“거룩하신 이여, 저에게 보살의 도를 말씀하여 주소서.”

“선남자여, 나는 온갖 지혜를 성취하는 해탈을 얻었노라.”

“무슨 까닭으로 온갖 지혜를 얻었다 하나이까?”

“이 지혜의 광명은 잠깐 동안에 삼세三世 모든 법을 두루 비추느니라. 나는 이 지혜의 광명문에 들어가서 모든 법을 내는 삼매왕을 얻었으며, 이 삼매로 인하여 뜻대로 태어나는 문을 얻었으며, 여러 여래에게 공양하였느니라. 어떤 중생이든 내가 이렇게 부처님께 공양한 줄 아는 이는 모두 무상보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어떤 중생이든 나에게 오면 나는 받아바라밀다를 말하여 주었느니라.

나는 모든 중생을 보아도 중생이라는 분별을 내지 않았으니 지혜의 눈으로 보는 연고며, 모든 말을 들어도 말이라는 분별을 내지 않으니 마음에 짐작이 없는 연고며, 모든 여래를 뵈어도 여래라는 분별을 내지 않으니 법의 몸을 통달한 연고며, 모든 법륜을 머물러 가지면서도 법륜이라는 분별을 내지 않으니 법의 성품을 깨달은 연고며, 한 생각에 모든 법을 두루 알면서도 모든 법이라는 분별을 내지 않으니 법이 환幻과 같음을 아는 까닭이니라.”

학인 스님 여러분, 사자빈신 비구니는 53선지식 가운데 유일한 비구니 선지식으로서 단정한 몸과 고요한 위의를 갖추고 두려움이 없기가 사자왕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살도를 묻는 선재동자에게 지혜를 얻어 해탈을 성취한 방법은 바로 분별심을 내지 않고, 모든 법이 환幻과 같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수행자로서 우리는 사자빈신 비구니와 같은 위풍당당한 위의를 가져야 할 것이며, 중생이다 부처다, 옳다 그르다는 시비를 놓아버리고 일체 인연화합으로 이루어진 것은 허깨비 같음을 철저히 관찰하는 수행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법문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

가르침, 배움 그리고 다짐

동호 / 운문승가대학 조교수

몇 해 전 비구니계를 받기 위한 갈마의 시간이었다.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해 일이관지一以貫之, 하나로 페뚫는 안목을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봄부터 치문반과 수업을 함께하게 되었다. 이제 시작인 초보강사는 수업마다 시나리오 작업하듯 줄거리와 대사, 영상, 소품까지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수업의 대강을 구상한다. 흐름을 하나로 페어가면서, 갈마 때했던 말을 떠올리곤 한다. 안다고 생각했던 것은 막상 실전에서 말로 표현하면 궁색하기 그지없고, 처음도 중간도 마지막도 잘 기억하는 것이 쉽지 않다. 덕분에 매번 수업에 앞서, 주제들을 하나씩 모두 펼쳐 줄기를 잡고 전거를 찾아 구성하는 일을 반복한다. 물론 잘못 이야기한 부분을 되짚어 교정하는 일도 포함된다. 때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가다가 돌아올 시간을 잊기도 하고, 때론 이번엔 여기까지만 하면서 선을 긋기도 하면서 꽤 찬 시간을 보내고 있다. 공부하다가도 이런저런 울력을 해야 하는 학인들에 비한다면 치문반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내가 아닐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면 먼저 자기를 가르쳐야 한다(欲教餘 先自教). - 『불치신경佛治身經』¹⁾

직접 경험해보니 부처님 말씀이 어긋남이 없다. 경에서 말한 것처럼 이미 가르침을 얻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이 어렵지 않으리라. 다만 이 경에서 가르침을 얻는다는 것은 지식의 습득과 전달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계를 어기지 않는 법행을 갖추고, 법을 설함에 뜻이 어지럽지 않고 조리를 갖추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가르침을 얻는 것은 자기 몸과 뜻을 다스리는 것이며 경에서는 이것을 전투에 비유하고 있다. 자기의 몸을 이기는 것은 마치 한 사람이 군대를 이기는 것과 같다. 힘이 없어도 이기지 못하고, 욕심과 분노와 어리석음 등의 마가 범람해도 또한 이기지 못하며, 계를 지켜 닦지

않으면 또한 이기지 못한다. 그러므로 비구는 항상 자기를 살펴 이기고 이기지 못하는 것을 먼저 자기의 몸에서 결판지어야 한다. 자기의 몸을 이긴 사람은 평등한 마음으로 가르침에 나서서 다른 사람들도 또한 번뇌에 빠지지 않게 한다.

이번 철에 동산양개(洞山良价, 807~869)의 사친서辭親書를 공부하게 되었다. 화상의 행록을 찾다보니 『조당집』에 소개된 일화가 자못 흥미롭다.

“이 한마디를 그대로 삼켜 버려서는 안 된다. 만약 그렇게 하면 천생 만겁을 지나도 알지 못한다. 그대가 한 생각의 망념을 일으켜도 번뇌의 풀이 한 길이나 될 터인데, 어찌 하물며 말로 표현할 수 있으랴”

운암은 동산이 깊은 생각에 잠기는 것을 보고 속마음을 설하려 했는데, 동산이 말했다.

“스님께서는 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사람 몸을 잃지 않기 위함이니, 이 일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동산의 배움은 발초참현撥草參玄, 즉 풀을 헤치고 다니면서 뛰어난 스승의 가르침을 찾아 다니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러한 구법의 행각 가운데서도 동산은 단지 개념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애씨' 체득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 한마디'를 그대로 삼키지 않은 동산은 후에 물을 건너는 도중에 물속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깨달음의 노래를 읊는다.

그렇다면 『선가귀감』에도 소개된 “나는 운암의 도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또한 그가 설한 불법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아니다. 그가 나에게 설파해 주지 않은 것이 귀중할 뿐이다.”라는 대목이 이해가 간다. 중요한 것은 '설파해 주지 않은 것' 혹은 '설파할 수 없는 그것'이며, 부단히 참구할 일이다.

또 다른 일화는 동산을 만난 남전보원(南泉普願, 748~834)이 “비록 후생이지만 다듬을 만한 재목이구나.”라고 칭찬하자, “양민을 천민 취급하지 마십시오(莫壓良爲賤).”라며 동산이 응수한다. 이후로 사람들은 동산을 작가作家 즉, 일가를 이를 만한 정법의 안목을 갖춘 뛰어난 선승으로 부르게 되었다.

다시 수업으로 돌아간다. 가르침이란 말과 행을 포괄한다. 상행하효上行下效라는 말처럼 위가 행하고 아래가 또한 본받아 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행이 바뀌면 업이 바뀌고, 업이 바뀌면 세계가 바뀐다. 비록 '설파해 주지 않은 것'이 소중하지만, 이 또한 말과 행의 설파에 힘입지 않으면 접근할 수 없다. 이 일을 위해 묵묵히 애쓰면서, 내게서 승부를 보는 일이 소중하다. 또한, 양민을 천민 취급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될 것이다. ④

1) 중국 서진(265~316)시대에 번역된 378자의 짧은 경전이다.

三藏에 나타난 師弟倫理 考察 ①

영덕 / 운문사승가대학 학장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三藏에 나타난 師弟倫理
 - 1. 봉다의 교육원리와 교수법
 - 2. 초기불교의 사제윤리
 - 1) 여래십호를 통한 스승상
 - 2) 「六方禮經」에서 읽는 사제윤리
 - 3) 「마하박가」에 규정된 弟子法과 화상의무
 - 4) 「사분율」에 나타난 제자상
 - 3. 대승불교의 사제윤리
 - 1) 大乘經典에 보이는 師弟倫理觀
 - 2) 「四分律僧羯磨」에 나타난 師資篇
 - 3) 「菩提道次第論」에서 말하는 스승과 제자
 - 4. 봉다 가르침의 현대적 의의
- III. 나오는 말

참고문헌

I. 들어가는 말

우리는 苦의 인식에서부터 佛教를 배우기 시작하고 苦를 벗어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하여 출가한다. 그 후 三藏을 통하여 고통과 고통의 원인과 고통의 소멸과 고통이 소멸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면서, 현재의 삶에서 번뇌를 없애고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얻어가는 과정을 이론과 실제를 통해 체득해 가는 것이다. 다행히도 부처님의 깨달음이 부처님으로부터 그 제자들에게 면면히 이어져 오늘에까지 이르니 바로 사제관계를 통해 전승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傳法宣言을 통한 봉다의 교시에서 이상적인 교육의 현대적 의의와, 초기와 대승불교 가운데 몇몇의 경을 논에 나타난 스승과 제자 간의 책임과 의무사항을 살펴보며 바람직한 사제윤리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三藏에서 각각 다루어진 내용은 다르나 궁통적으로 중요하게 제시하는 것이 사제관계에 대한 부분이다. 그것은 깨달음의 길에서 스승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제자는 이러한 스승에게 제자로서의 바른 자세를 갖추었을 때 온전히 스승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사람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곁에는 늘 스승이 존재해왔고 지금도 존재한다. 훌륭한 스승의 애정 어린 지도를 받은 제자는 출가자로서의 본분을 잘 지키며 수행에 전념하여 여러 사람에게 이익을 준다. 이들의 조화로운 가르침과 청정한 배움은 승가공동체의 기반이 되며, 올바른 스승의 존재, 그리고 새로 시작한 출가자에 대한 스승의 진심 어린 교육 이야기로 승단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가 된다. 불교경전은 전체가 스승과 제자의 윤리

를 설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깨달음과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가르치고 있는 스승 부처님과, 그것을 배우고 실천하며 깨달아 가는 출가와 재가제자들의 일화를 기록한 것이 바로 經典과 律藏이기 때문이다.

II. 삼장에 나타난 사제윤리

1. 봉다의 교육원리와 교수법

'師弟倫理'라고 할 때 '師弟'의 개념은 순수한 우리말로는 '스승과 제자'라고 하며 '스승'과 유사한 말로는 善知識, 和尙, 阿闍梨, 教師, 教育者 등의 말이 있다. '바람직한 영향을 끼침으로 인간적 성장을 도와 성취하게 하는 사람'은 모두 교육자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스승'은 넓은 의미의 교사와 가까운 말이다. 인간적 성장에 있어서 知, 德, 體를 포괄한 보다 바람직한 인격의 향상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求道를 통하여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도록 중생의 본질적 발전을 돋는 자를 말하며, '제자'란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警戒하고 조심하는 가운데 선한 행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권장하므로 '倫理'라는 덕목으로 이름한 것이다. 이와 같이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인 깨달음을 얻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는 師弟同行에서 시작한다. 바로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올바른 행을 실천하며 자신의 마음을 닦아가며, 제자를 올

바로 지도함으로써 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스승의 근본 역할인 것이다. 봉다의 전법정신에 나타나 있는 인간 교육의 이상에 대해서 살펴보면 박선영은 불교의 이상적 인간상을 '밝고 따뜻한 주체적 인간'으로 정의했다. 인간 스스로 깨달음의 체험을 통해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데에 목적을 둔 것이다.¹⁾ 봉다의 교육방법은 그 주제와 내용 그리고 청법자의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역동적 상호관계와 맥락적인 가르침(contextual teaching)으로 학습자의 능력과 현재의 수준, 그리고 관심사와 필요성 등의 교육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구사하는 隨機的 교수법을 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학습자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므로 봉다는 개인의 성향과 균기를 파악하기 위하여 선정에 들어 제자의 균기를 살폈으며 이에 대응하여 적절한 가르침을 시설한 것이다.²⁾ 봉다의 교육정신은 초기 교화시대에 행한 '전법선언'³⁾에 명료하게 표현되어 있다. 봉다는 스스로 깨달은 진리를 전파하고자 전도여행을 시작하여 녹야원에서 5인의 비구에게 최초의 설법을 하였다. 그 후 바라나시 장자의 아들 야사(耶舍, Yasa)를 비롯한 60명의 제자가 생겼을 때, 그들에게 모든 생명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가르침을 널리 전할 것을 부탁한 것이 '전법선언'이다. 이 전법선언의 첫 구절인 '비구들이여, 나는 하늘과 인간의 모든 구속으로부터 벗어났다. 비구들이여, 너희들도 또한 하늘과 인간의 모든

1) 박선영, 불교의 교육사상 (서울: 동화출판공사, 1981), pp.48~55.

2) 김용표, 「제8장 봉다의 교육원리와 교수법」, 「포스트 모던 시대의 불교와 종교교육」 (서울: 정우서적, 2010)

3) 朴先榮, 「釋尊の基本的な教育思想試論—傳道宣言を中心して—」, 「水谷幸正先生古稀記念論集 佛教教化研究」(京都: 水谷幸正先生古稀紀念會, 平成10) 참조,

구속으로부터 벗어났다.'고 하는 부분은 生死로부터 해탈한 자만이 참된 행복으로 가는 가르침을 전할 수 있다는 불교적 교육자의 기본자격을 제시하는 것이다.

아라한(arhat)이 된 봉다와 그의 제자들은 모두 우주와 인생의 모든 결박으로부터 해탈한 대자유인이 되었으므로 중생을 제도할 종교교사로서의 자격을 구족했다는 확신을 말하고 있다. 다음 구절 '비구들이여,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세간을 불쌍하게 여기고 인간과 하늘의 행복을 위하여 遊行하라.', '하나의 길을 둘이서 함께 가지 말라.'는 부분은 '왜 교화 여행을 떠나야 하는가?'에 대한 목적과 教育愛에 대한 선언으로 볼 수 있다. 봉다는 '인천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遊行하라'고 당부한다.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는 중생들에 대한 사랑과 연민으로 그들을 찾아가 법을 전하라는 것이다. 불교적 교육에는 모든 인간을 '지혜인-자비인-자유인-주체인'⁴⁾으로 만들고자 하는 큰 사랑에 있는 것이다. 봉다는 '하나의 길을 둘이서 함께 가지 말라'고 당부하며 60명이 각각 다른 길로 전도여행을 떠나게 한다. 이것은 더 많은 지역에 가서 더 많은 사람에게 법을 전하도록 하기 위한 교육적 자비와 전법자의 사명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법을 설해야 할 것인가. '비구들이여, 처음도 아름답고 중간도 아름다우며 마지막도 아름답게 하라'는 말씀은 내용의 의미와 표현을 잘 갖춘 법을 말하며, 모두 원만하고 청정한 梵行에 대해 가르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 부분은 전법선언에서 교육학적으로 가장 강조되는 중요한 덕목으로 교수-학습이론을 제시하고 있는 대목이다. 여기에서 '아름답게'라는 말은 說法의 서론과 본론과 결론 어디에서나 '내용의 의미와 표현을 잘 갖춘 법을 설하라'는 것이다. 봉다가 제자들에게 '내용과 표현을 갖추어야 한다(義文具足)'고 한

것은 교육의 주제에 따라 이에 가장 적절한 교수법과 표현방법을 선택하라는 것이다. 학습자의 능력과 필요성 등의 교육적 맥락에 따라 교육방법을 다양하게 갖추기를 바라는 교수법의 제시로 볼 수 있겠다. 이러한 隨機說法의 이론은 학습자의 수준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교수-학습이론이라 할 것이다. 또한 '원만하고 청정한 梵行을 설하라'는 것은 이론과 실천이 하나가 됨을 보이라는 당부이다. '태어나면서부터 더러움이 적더라도 법을 듣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냥 죽게 되는 중생도 있다. 그들도 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자들일 수 있으므로.'라고 하는 부분은 교육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과 학생관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모든 중생은 교육에 의해 구제될 수 있다는 존재의 가능성을 확신하는 것이다. 누구나 교육의 힘에 의해 보다 나은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교육적 신념이 여기에 깃들이 있다. 마지막 부분인 '비구들이여, 나도 또한 법을 설하기 위하여 우루벨라의 장군촌으로 가리라.'⁵⁾고 한 것은 봉다 스스로 스승으로서 모범을 보이고자 하는 자발적 약속이다. 전 생애를 중생교화에 헌신하려는 봉다의 각오와 진리를 설하는 데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교육자로서의 용기와 참된 신념'⁶⁾이 함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봉다의 전법선언을 통하여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3단계의 교육원리를 정리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교육자 자신이 먼저 학습자가 경험해야 할 과정을 충실히 이해하고 체험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가르쳐야 할 학습자의 능력과 요구가 잘 파악되었을 때 다양한 교수법을 통하여 효율적인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세 번째 단계는 교육자적 소명의식과 신념 그리고 전인교육에 대한 자기확신과 실천이 확고할 때 최상의 교육효과를 성취할 수 있다는 교육원리를 도출해 볼 수 있다.

2. 초기불교의 사제윤리

1) 여래십호를 통한 스승상

석존 在世時 직접 관계되는 제자들이나 재가 신자들이 석존을 어떻게 호칭하였는가 하는 점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왜냐하면 이러한 호칭 속에는 당시 불교계가 위대한 스승에 대해서 존경하는 바와 기대하는 바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당시 스승의 위치나 임무 내지 역할, 자질 등을 포함하는 스승像에 대해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았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초기불교 아래 석존에 대한 칭호로서 대승에 이르기까지 불교계에 널리 사용되어 온 것은 '如來十號' 와 '牟尼' 가 대표적인 어휘이다.

①여래(如來, tathāgata):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신 분으로 진리의 체험자라는 말이다. 즉 진여에서 오시고, 진여로 돌아가신 분이란 뜻이 있으므로 如來 · 如去라는 말로써 설명되고 있다.

②응공(應供, arhat): 아라한의 번역이다. 번뇌의 적을 무찌른다는 뜻에서 殺賊이라 하며, 훌륭한 복전이므로 응공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不生 · 眞人 · 應眞 등으로 번역되고 있다.

③정변지(正遍知, samyak-saṃbuddha): 일체 법에 대하여 올바르게 빠짐없이 아는 분이라는 뜻이며, 일체종지를 성취하였기에 正邊覺 · 等正覺 또는 正覺者라고도 불리진다.

④명행족(明行足, vidyācarana sampanna): 지혜와 실천이 완전한 자라는 뜻이다. 三明과 三業을 원만하게 구족했다는 뜻에서 명행족이라고 한다.

⑤선서(善逝, sugata): 훌륭하게 완성된 자로서 깨달음의 경지인 피안으로 잘 가신 분이라는 뜻이니, 즉 부처님은 여실히 저 언덕에 가서 다시 생사의 바다에 빠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⑥세간해(世間解, loka-vid): 중생세간과 기세간의 원인과 도리의 모든 것에 대해 완전하게 아는 자라는 뜻에서 知世間이라고도 번역한다.

⑦무상사(無上士, anuttarā): 공덕과 지혜가 원만하게 갖추어져 위 없이 뛰어난 최상의 인간이라는 뜻이다. 세간이나 출세간을 막론하고 가장 높은 분이라는 의미다.

⑧조어장부(調御丈夫, purusa-damyasārathi): 사람을 길들이고 조련하는 데 있어 훌륭한 능력을 가진 자라는 뜻이다. 부처님은 대자와 대비, 大智의 방편으로 調伏制御하여 정도를 잃지 않게 하는 이라는 뜻이다.

⑨천인사(天人師, śāsta deva-manusyānam): 천신과 인간의 스승이라는 뜻으로, 선과 악을 잘 가르쳐서 도법에 의지하여 행하고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려 해탈을 얻게 하는 분이라는 뜻이다.

⑩불세존(佛世尊, buddho-bhagavān): 세간에서 존귀하신 부처님이라는 뜻으로 복덕을 갖춘 자,

4) 김용표, 「불교적 인격교육의 이념과 방법」, 『종교교육학연구』 2집(1996), pp.33~60.

5) 『남전대장경』 12, p.180; 『잡야함경』 39(T.2), p.288ab.

6) 사무소외(四無所畏)는 봉다의 진리를 설하는 데 두려움이 없는 용기의 덕목으로 ①정등각무외(正等覺無畏): 일체 모든 법을 평등하게 깨달아 다 알아서 다른 이의 헐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②누진지무외(漏盡智無畏): 고통의 원인인 온갖 번뇌를 다 끊었으므로 이에 대한 비판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③설장법무외(說障法無畏): 도에 지장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데 걸림이 없는 것 ④설출도무외(說出道無畏): 고통을 없애버리는 길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봉다 스스로 계 · 정 · 혜를 닦아 생사를 해탈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난 사람이라고 설함에 대하여 외도가 비난한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음을 말한다. 『중일야함경』(T.2), p.645bc.

또는 스스로 깨닫고 남을 깨닫게 하는 자, 높으신 스승님의 뜻이 있다. 이를 覺者, 有功德, 破淨地 등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위의 내용을 통하여 살펴 볼 때, 초기불교계에 있어서 불타의 칭호에서 알 수 있는 스승상은 1. 깨달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두루 알고 있어야 한다 2. 지혜, 자비, 청정한 생활, 공덕, 복덕 등을 두루 갖추고 있어야 한다 3. 번뇌와 괴로움이 없는 정신적 평정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4. 다른 사람을 바르게 잘 깨우쳐서 이해시키고 이익을 주며 평화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5. 적절한 언설과 방편으로 상대방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 6. 세상으로부터 최상의 존경을 받을 만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불교의 이러한 스승상은 이들 호칭과 함께 초기와 대승에 걸쳐 일관되게 사용되어 왔다. 이와 같은 스승상은 불교에 있어서 그대로 이상적 스승의 資質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스승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임무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스승은 1. 스스로 바르고 참되고 평화롭고 선한 마음을 지녀 훌륭한 인격자로서의 삶을 살아서 모든 사람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 2. 바르고 밝게 두루 알아 제자를 잘 가르치며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 3. 스승의 자리는 이와 같이 고귀하고 존엄하며 막중한 위치임을 알고 이에 걸맞은 마음가짐과 실천을 해야 한다. 이 세 가지는 스승이 지녀야 할 도리요, 행위의 準據라는 점에서 스승의 윤리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이와 같은 스승에 대해서 최상최대의 존경과 신뢰를 지니고 따르는 것이야말로 제자가 가져야 할 윤리라고 하겠다. 이와 같은 점은 불타의 칭호에서 간접적으로 찾아보았다.

한편 초기불교에서는 불타만이 아니라 높은 덕망으로 스승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고승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칭호로 불리고 있음을 발견하

게 된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阿羅漢, 和尙, 阿闍梨, 無執着, 大德, 善知識, 長老, 法師, 上座, 尊者 등 열 가지를 들고 있다. 낱낱의 의미는 지면 상생략하지만, 위의 칭호에서 파악할 수 있는 스승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번뇌나 邪心, 또는 개인적 욕심이 없다 2. 지혜와 덕망, 그리고 높은 수행의 경력이 많다 3. 불법에 정통하여 바르게 가르치고 이끌어 준다 4. 아버지와 같이 가르치고 어머니와 같이 보살핀다 5. 집단 가운데서 유품의 자리에서 통솔한다 6.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 된다. 이상과 같은 분들은 언제나 본질적으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깝고 진실한 벗의 역할을 감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것은 스승은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존재이고, 유품의 자리에서 통솔하는 위치에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벗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진정 지혜로운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제자의 인격적 성장을 돋우는 사람이라는 뜻이겠다. 또한 스승이 통솔하는 자라는 것은 스승과 제자로 구성된 한 집단의 대표요, 지도자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의미 속에는 집단 구성원으로의 제자는 스승에게 복종하고 따라야 한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승이 본질적으로 가장 가까운 인생의 벗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제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단순한 상하 위계 관계가 아닌 진리탐구와 그 실현을 위한 삶의 동반자 관계라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스승은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지만 그 존경과 신뢰는 상하의 개념보다 밝게 인도하고 바르게 깨우쳐 주며 모범이 되어 깊은 이치를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不生不滅

혜성 / 사교과(3학년)

무자개빛 혜성색새 발자국
染心으로 물들여진 발자국
熟業으로 길들여진 발자국
봄이 오면 이 놀지도 지워지네

붓다, 히어로의 일생

양경수(그림왕 양치기)

/ 현대미술 작가

단청을 그리던 아버지와 팽화를 그리던 어머니 밑에서 자랐으나 다른 뜻이 있어 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했다. 20살 때 가출을 하여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과 공부를 병행하다 10년 만에 대학을 졸업했고, 서양화에 담이 없어 디지털 드로잉으로 전환하여 이런저런 작업을 했다. 그 과정에서 나의 근본을 들여다 보기 시작하였고 그 끝에는 '불교'가 있었다. 종교로서의 맹목적인 믿음의 불교가 아닌 그 사상과 본질적인 매력에 심취하여 나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불교의 이야기와 캐릭터를 재해석해 나갔다.

그 시절 부처님은 분명 '셀럽' 이자 '인싸'였다. 그의 'HIP' 한 외침은 여러 대중들을 매료시켰고 다수의 팬들이 그를 따랐다.

'21세기의 부처님은 어떤 모습일까?'

'그를 따랐던 다른 힙스터들이 현시대에 있다면 어떤 사람들일까?'

그래서 그렸던 그림이 <붓다, 히어로의 일생>과 <부처님의 십대제자-THE TEN>이다.

우리는 깨달음을 얻고자 부처님을 믿고 그를 닮아가려 노력한다. 하지만 내가 닮고 싶은 그의 모습은 거대한 금빛으로 빛나는 몸과 곱슬머리에 반쯤 감은 눈으로 가부좌를 들고 있는 암도적이고 권위적인 모습이 아니다.



『붓다, 히어로의 일생』 中 〈녹원전법상鹿苑轉法相〉

높고 낮음, 넓고 좁음, 많고 적음, 좋고 나쁨 따위에 연연하지 않고 오롯이 자신을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려 노력하는 '정진'과 '정견'. 그것이 내가 닮고 싶고 내가 respect하는 부처님의 모습이고 불제자의 모습이다.

사람마다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다. 나는 작가로서 불교를 조금 더 나의 상황과 사상에 맞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표현해 나가려 노력한다. 그것은 내가 성직자가 아닌 작가이기 때문이다. ☺

부처님의 십대제자 Buddha's Ten Principal Disciples <<THE TEN>>

125:1의 경쟁률을 뚫은 상위0.0001%의
초특급 엘리트 꽃미남들!!!!

I out of 125 competitors.

Within 0.0001 % among the top of the top.
The uber-elite-bestest-ever-super-fantastic
pin-up boys!!!!

비주얼이면 비주얼,
Got the face,

능력이면 능력,
Got the ability,

해탈이면 해탈,
Even got nirvana,

무엇 하나 빠지는 것이 없었던
압도적인 그들,
These men were second to none.

이제 그들을 만날 시간이다!
Now, time to meet The Ten!



지계제일 우바리, 신통제일 목건련, 지혜제일 사리불, 다문제일 마난다,
두타제일 마하가섭 (왼쪽부터)



설법제일 부루나, 논의제일 가전연, 천안제일 아나율, 해공제일 수보리,
밀행제일 리출라 (왼쪽부터)



양경수

각종 SNS에서 '그림왕 양치기'라는 필명으로 직장인, 대학생, 아기엄마 등 일반인들의 공감을 끌어내는 다양하고 재치있는 그림을 선보이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불교를 현대적으로 색다르게 재해석하여 작업하고 국내외에서 활발히 전시를 하고 있는 현대미술 작가이다.



스님들의 가장 큰 배경은 수행력

- 26회 총동문회장 동언스님 탐방기 -

덕운 / 사교과(3학년)

겨울비가 내리는 날 아침 공양을 서둘러 마친 후 도반들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기차에 몸을 실었다. 대전에 위치한 금종사는 오래된 주택가 사이 경사진 오르막길에 앞 전경이 환하게 보이는 단아하고 고전적 느낌의 절이었다. 마치 화단처럼 화사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담장의 심우도 앞에서 우리는 인증샷 한 장을 찍고 안으로 들어갔다.

“일찍 왔네요, 아침 공양도 제대로 못 먹었죠?”

“저희는 오늘 쉬는 날이라 잘 먹고 왔습니다.”

“요즘 강원은 쉬는 날도 있어요?”

선배님은 유쾌하게 저희를 맞이하시며 차와 다과를 내주셨고, 어느새 우리는 당신의 오랜 동안 수행하며 살아오신 세월 속으로 들어가 있었다.



“불교에 참선법이 없었다면 출가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강원에 다닐 때도 선방에 앉아 야만 공부가 되는 줄 알

아서 경전 보는 것은 허송세월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경전은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해줄 뿐이지, 실천을 해야 한다는 간절함이 커어요. 몇 번이고 마음의 보따리를 싸고 풀면서 강원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여기서 끝을 못 보고 선방에 가면, 이런 시기가 또 올 때는 진짜 갈 곳이 없을 것 같아 하나라도 끝을 맺는 게 중요하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경전 공부를 열심히 다 하고 선방에 가서 참선을 하게 되었지요.”

“수행자의 가장 큰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 가지 여쭈려 온 우리에게 거꾸로 스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셨다. ‘신심’, ‘도반’, ‘지혜’ 등 여러 답변이 나왔지만 스님께서 생각하셨던 답은 다음과 같았다.

“저는 사람들한테 종종 ‘스님은 무슨 배경이 좋아서 그렇게 당당하냐?’는 질문을 받아요. 그럼 ‘중이 당당하지 않을 이유가 뭐 있나요?’하고 답변을 건네지요.

세상 사람들은 명예와 지위가 큰 배경이라고 하지만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스님들의 가장 큰 배경은 수행력이라고 생각해요. 수행은 없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경전에 말씀으로 일러 놓으신 것들을 증험 증득하는 것이에요. 수행력을 기르려면 업이 녹고 복이 쌓여야 하며, 불보살의 힘을 빌려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죠. 아니면 번뇌 속에서 허우적거리다 끝나요. 안과 밖을 여법하게 잘 가꾸어 가면서 수행을 잘하면 제천諸天이 여의식與衣食이라고 하늘이 옷과 음식을 준다 했어요.”

그리고 배부르고 등 따시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뭐든지 수용을 많이 하게 되면 탐과 차이 생겨서 공부에 진전이 없고 장애가 생기지요. 저는 선방에서도, 미얀마나 인도에서 공부할 때도 제 이름 새겨진 옷 한 벌 없었고, 택배 한 번 받아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바나나 박스 2개가 전부예요.”

오로지 정진력으로 가려던
길을 잘 찾아가셨고, 아직 그
길이 행복하기만 하신 스님께
서는 공부 얘기에 눈이 반짝반
짝하시며 여전한 열의를 뿜어
내셨다.

“공부도 해본 사람이 그
맛을 안다고, 해봐야지만 더



갈증을 느끼고, 의구심이 생기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선방에 앉아 ‘이뤘고’ 만한다고 수행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앉아 있는다고 성불할 것 같으면 저 산을 지키는 바위들은 성불하고도 남았겠죠.

선가귀감禪家龜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參禪엔 須具三要니 一은 有大信根이요 二는 有大憤志요 三은 有大疑情이라 荷闕其一하면 如折足之鼎하야 終成廢器하니라. 工夫는 如調絃之法하야 繫緩에 得其中이니 勸則近執着하고 忘則落無明이니라. 참선에는 반드시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니, 첫째는 큰 신심이고, 둘째는 큰 분심이며, 셋째는 큰 의심이라. 만약 하나라도 빠지면 다리 부러진 솔과 같아서 소용없는 물건이 될지니라. 공부는 거문고 줄을 고르듯 팽팽하고 느슨함이 알맞아야 하니 너무 애쓰면 짐작하기 쉽고 잊어버리면 무명에 떨어지게 되니라.

대부분 선방에서 화두를 염念佛하고만 있지, 의심疑惑心이 안 들어서 한 철 헛사는 경우가 많아요. 선방에서 용맹정진할 때 서로 등을 지고 앉아 있는데 어른 스님이 누가 망상하고 있는지, 졸고 있는지 다 보인다고 했어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수행을 오래 하고 그 자리에 가 보니 정말 다 보이더라고요. 저도 우리나라 선방 안 가본 테가 없고 옛 조사 스님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 해본 방법들을 흡내는 다 내본 것 같아요. 무문관, 위빠사나, 밀교 수행에 둑언, 불식은 기본이고, 잠을 깨기 위해 턱 밑에 바늘도 놓고 해봤어요. 그러다 졸면 찔릴까봐 무의식적으로 고개가 뒤로 젖혀지더라고요. 지금은 행주좌와 行住坐臥 어묵동정語默動靜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몸과 마음이 순간순간 대상을 만나면 물 흐르듯 항상 젖어 있고 함께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선방이 나 간화선 수행에 대해서는 강원의 어른 스님들에게도 간혹 들을 기회가 있었지만 밀교나 위빠사나 수행은 우리에게 생소했기에 선배 스님의 다양한 수행 체험기는 너무나도 흥미로웠다. 55세가 되기 전에 꼭 하고 싶었던

오체투지를 생각보다 훨씬 전에 하게 되셨고, 오늘날까지도 이어서 하고 계신 스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큰 감동을 안겨줬다.

“미얀마에서 수행을 할 때 집중수행 기간이 있었어요. 스님들은 일부이고 일반 재가불자들이 많은 이 모임은 사부대 중 앞에서 질문하고 답하는 공개 인터뷰 형식이에요. 단계별로 1주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 또는 매일 인터뷰를 해야 했어요. 인터뷰를 하기 위해 밤을 새워 공부를 해야만 했죠. 안 하면 말 한 마디도 못하니까요. 선방에서 『아함경阿含經』과 다른 경전을 틈틈이 공부한 것이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강원에서는 목욕날에 무조건 삼천배를 하였고 선방에서도 600배를 했어요. 평소에 절을 많이 해서 무릎이 좋지 않아 너무 나이 들기 전에 오체투지를 꼭 해보리라 원을 세웠어요. 우연히 연꽃마을 각현스님이 20년 자원봉사자 팀을 이끌고 가는 성지순례에 인연이 되어 따라 가면서 원을 세웠던 시점보다 훨씬 전에 오체투지를 하는 곳에 가게 되었어요.

인도 보드가야 사선정四禪定 자리에서 동안거 동안 하루에 삼천배 오체투지 절을 했어요. 새벽 3시에 수건 7~8개 말아 챙겨 가서 시작하면, 5시 30분에 짜이 한 잔 받아 마시고 저녁 9시 30분까지 절을 했어요. 오전에 삼분의 이는 해 놔야지 오후에는 더워서 속도가 절반으로 떨어지거든요. 하루 한 끼, 공양도 최소한으로 하고 물만 마셔 가며 절을 하니 하늘이 노랗고, 날씨는 덥고, 수건을 짜면 땀이 줄줄~~, 뺄지도 못하고 그대로 말려서 다시 사용했어요. 사람들이 오고 가며 카운팅한 것을 보고 ‘코리아 아니(비구니), 참 잘해요.’ 하며 칭찬하고 응원해 주더라고요. 한국 절보다 오체투지가 훨씬 하기 쉬워요. 내려울 때 몸을 꺾지 않고 일자로 바로 뻗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겁을 내서 잘 못해요. 그런데 팔힘으로 하기 때문에 무릎이 아파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때 그렇게 해본 오체투지를 통해 저의 한계점이 어디까지인지를 체험해 본 것 같아요.”

그렇게 외국에서 오랫동안 닦아온 수행을 지금은 찾아오는 분들을 위해 가르치고 지도해주시며 지내신다. 대한민국에서 불교가 가장 자리 잡지 못한 곳을 찾다가 머물게 된 지금 이곳, 금종사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여쭤보았다.

“3년 전에 알 수 없는 이유로 화재가 크게 나서 절이 완전히 소실되었어요. 그전에는 제대로 갖춘 절이었는데 재만 남아 다시 불사를 해서 지금의 금종사가 되었어요. 평생 걸망 하나 지고 동가식서가숙東家食西家宿으로 떠돌며 살았던 제가, 조계종에서 떠날 기회를 주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몸담고 있을 때 화재가 났는데, 여기 사람들을 버리고 갈 수가 없었어요. 저로 인해 전체적인 불교에 대한 이미지가 깎이면 안 되니까, 그리고 스님들은 쉽게 떠난다는 불신이나 배신감을 안겨 주고 싶지 않았어요. 불탄 재만 치우는 데 경비가 3천만 원이 넘었어요. 매일 아침 눈이 떠지는 것이 감사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참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지만 이런 작은 토굴이라도 불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작은 정성과 관심이 모여 큰 힘이 된 결과인 것 같아요.”

경전으로만 배웠던 부처님 가르침을 평생 선객으로서 몸 소 체험하며 살아오신 스님의 말씀은 아주 귀한 보물과 같았다. 짧은 시간 내에 온 힘을 다해 공부하고 수행하며 체득하신 경험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신 스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인사를 올렸다. 선배님께 받은 에너지 덕일까? 하루 만에 다녀

와야 하는 빠듯한 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운문사로 돌아오는 길에 괴로함이라고는 없었다. 수업 중에 제일 안 좋고 열심히 들었던 선가귀감 구절도 다시 접하니 새삼 반가웠고, 그때는 이해 못했던 말들이 마음속 깊게 스며드는 것 같았다. 벌써 이 겨울이 지나면 졸업반이 되어 걱정과 기대에 고민이 많았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은 알 것 같다.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네번 째 성스러운 진리, 즉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에는 다양한 길이 있다. 그중 나에게 맞는 수행법을 찾아 이번 생이 끝날 때까지 옮기려 한다. 선배 스님의 걸어오신 발자취를 우리도 성성력력惺惺歷歷하고 밀밀면면密密綿綿하게 열심히 수행 정진하며 따라가기를 발원해 본다. ☽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에 대한 기본적 이해 ③

- 『화엄경청량소華嚴經清涼疏』 중심으로 독해하기 -

진하 / 대교과(4학년)

목 차

1. 들어가며
2. 독해에 앞선 개론적 이해
 - 2-1. 『화엄경華嚴經』 및 「야마궁중개찬품 夜摩宮中偈讚品」
 - 2-2. 청당장관清涼澄觀과 「화엄경청량소」
3. 「화엄경청량소」를 통한 ‘유심계唯心偈’ 독해
 - 3-1. 각림보살 계송 번역
 - 3-2. 앞의 다섯 계송: 악유현법雁喻現法 – 비유를 들어 법을 나타내다
 - 3-3. 뒤의 다섯 계송: 법합성관法合成觀 – 법에 대응하여 관을 이룸
4. 나가면서

3-3. 뒤의 다섯 계송: 법합성관法合成觀 – 법에 대응하여 관을 이룸

⑥ 정관은 후반부의 계송들을 전반부의 계송들과 의미상 배대시키고 있다. ⑥번 계송의 경우 ①번 계송과 대응하며 제1구의 마음은 총상심總相心으로 『기신론』의 진망화합식을 말하는 것이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정관은 『성유식론』의 제팔식第八識 초능변初能變에 관한 대목을 인용하고⁸⁾, 마지막 구절의 ‘법을 짓지 않음이 없다無法而不造」는 부분은 아뢰야식의 ‘이숙異熟’ 작용이라고 칭하였다. 정관은 ⑥번 계송을 비롯한 다른 여러 구절에서 법상종의 『성유식론』을 인용하고 있으나, 결정적으로 ‘마음’을 『기신론』의 진망화합식으로, 즉 법성종의 견지에서 파악함으로써 법성종의 관점에 우위를 두고 있다.

⑦ 정관은 ‘마음’을 총상總相으로 보아서, 깨달으면 불佛이라 이름하고 정연기淨緣起를 이루며 미혹하면 중생을 짓고 염연기染緣起를 이룬다고 말한다. 정관은 ‘마음心’에 대하여, 연기에는 염정染淨이 있어도 마음의 본체에는 다툼이 없을뿐더러, 이 마음이 일체 세간과 출세간의 법을 다 포섭하므로 ‘총상總相’이라 이름한다고 밝힌다. 본 계송의 후반부 구절은 『화엄경』 60권본에서 ‘심불급중생 시삼무차별心佛及衆生是三無差別’로 번역된다. 정관은 ‘차별없는 상 [無別之相]’이 곧 ‘무진無盡’이므로 두 번역본을 회통하면 응당 ‘심불여중생 체성개무진心佛與衆生 體性皆無盡’이라고 번역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때 망법妄法이라 할지라도 진眞에 근본하기 때문에 무진無盡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⑧ ①번 계송의 “대종은 차별이 없다大種無差別”를 설명하는 동시에 수행의 이익(觀의 이익)을 밝히는 계송⁹⁾이라고 한다. ‘만약 사람이 마음 쓰는 것으로 널리 모든 세간을 짓는 줄 안다면 이 사람은 곧 부처를 보아 부처님의 진실성을 알게 되리라.’는 구절은 심행心行으로 널리 세간을 짓는 줄 안다면 허망이 없어지고 즉시 진실을 깨닫는다고 하여 ‘무진無盡’을 보충하여 ‘무차無差’로 심화시켰다.

⑨ 정관은 본 계송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았는데, 첫째 의미는 ②, ③번 계송의 진眞, 망妄, 심心, 경境이 서로 부즉不即하고 불리不離함을 밝힌 부분이 일치한다고 보았다. 둘째 의미는 ‘부주不住’의 의미로 제1, 2구의 ‘마음이 생각 생각에 멀하는 고로 몸에 능히 주할 수 없고, 몸 또한 마음에 주할 수 없는’ 부주不住의 의미로 해석할 때 ‘괴심항부주彼心恒不住’로 시작하는 ④번 계송과 의미를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⑩ 마지막 계송은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실천수행을 권하는 구절이자 ⑤번 계송의 ‘자기의 마음을 알지 못하지만 마음을 말미암아 짐짓 그림을 그리는 것’과 합치된다고 보았다. 마음을 모르면 혓된 경계를 꿈꾸지만, ‘오직 마음이 지어내는 것’인 줄 관한다면 진불眞佛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전체를 살펴보면 전반부의 계송에서는 중생의 근기根機를 드러내었고 후반부 계송에서는 관법觀法을 드리낸다고 보았다. 정관이 제시한 두 가지 해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는 ‘부처를 알려면 웅당 법계성을 관할지니, 즉 일체 차별이 다 마음이 지은 것이라고 관해야 하며, 이때 ‘법을 보는 것이 곧 부처를 보는 것’이라고 한다. 둘째 해석으로는 ‘법계의 성품을 관하는 것이 진여문眞如門이고, 오직 마음이 지어낸을 관하는 것은 생멸문生滅門’이라고 해석하였다. 그중 전자가 진여실관眞如實觀이며 후자는 유심식관唯心識觀으로 이들이 대승관법의 요체라고 밝힌다. 이 두 가지 문이 ‘일심一心’이고 각각이다 일체법을 총섭한다고 관관한다면, 진제眞諦와 속제俗諦가 원융무애圓融無碍한 한 맛一味]이라는 것이다. 삼세제불이 이를 중득하여 체로 삼았으니, 웅당 부처를 알고자 할진대 이렇게 관을 행해야 한다는 권유로 각립보살계송에 대한 소疏를 마무리하고 있다.

나가면서 : ‘일체유심조’에 대한 고찰

『화엄경』 원문의 전후 맥락을 유심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주석서를 참고하는 것으로 ‘일체유심조’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하는 것이 금번 소고의 취지이다. 이에 상기 글에서 각립보살의 10

8) 護法造譯, 「成唯識論」卷第二, 大正藏 No.1585 Vol. 31 p.7b~c, 인능변因能變, 과능변果能變과 이숙異熟에 대한 설명을 참조하여 각 계송의 문구에 배대하고 있다. 一因能變 謂第八識中等流異熟 二因習氣 等流習氣由七識中善惡無記熏令生長 异熟習氣由六識中有漏善惡熏令生長 二果能變 謂前二種習氣力故 有八識生現種種相 等流習氣為因緣故 八識體相差別而生 名等流果果似因故 异熟習氣為增上緣惑第八識 翻引業力恒相續故立異熟名 惑前六識酬滿業者從異熟起名異熟生 不名異熟有間斷故 即前異熟及異熟生名異熟果異因故 此中且說我愛執藏持雜染種能變果識名爲異熟

9) 정영, 「중국화엄사상 연구」(서울: 조계종출판사, 2023) p.435

개 계송에 관한 중국 당唐시대의 화엄종 5조인 청량정관清涼澄觀의 소초를 요약정리하였다. 청량정관은 유심계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법계의 성품을 밝힘과 동시에 마음에 대한 관법을 제시하는 내용이라고 보았다. 계송에서 나타난 법을 해석함에 있어 유식학파의 저술인 『성유식론』 등을 참고하되, 마음을 진과 망이 화합한 '여래장성 청정진심', '총상심'으로 보는 여래장 사상 계열의 『능가경』, 『기신론』을 인용하여 견해를 피력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 하에 정리해보면 유심계는 첫째,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로서의 '법계성을 바탕으로 일체차별상이 다 마음이 지은 것'으로 관하라는 점. 둘째, 진여문으로서 '법계성'을 관하고, 생멸문으로서 '일체유심조', 즉 일체가 오직 마음이 지어낸 것임을 관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진여문에 의하여 지행止行을 닦고 생멸문에 의하여 관행觀行을 일으키는, 『기신론』에서 제시하는 수행법¹⁰⁾과도 상통하리라 보인다. 진여문과 생멸문, 부처의 마음과 중생의 마음이라는 것이 서로 달리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대승법에는 오직 하나의 마음, 일심一心 밖에 다른 법이 없다는 것이 기신론의 관점이다. 이 일심이 곧 적멸이며 여래장인 것이다. 다만 무명으로 자기의 일심을 미혹하여 육도에 유전하는 것이며, 육도의 물결을 일으키더라도 일심의 바다를 벗어나지 아니하니, 진실로 일심이 움직여서 육도를 일으키기 때문에 널리 구제하고자 하는 서원을 발하게 되는 것이요, 육도가 일심을 벗어

나지 않기 때문에 동체대비로 분별없는 대자비심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라고 원효대사는 「대승기신론소」에서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유심계唯心偈로부터 문수의 지혜와 보현의 광대한 행원을 동시에 읽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끝으로 원효의 대승기신론소의 한 구절을 인용하는 것으로 본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미 둘이 없는데 어떻게 '일-'이 될 수 있는데? '일-'도 있는 바가 없는데 무엇을 '심心'이라 말하는가?"¹¹⁾ ※

*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합니다.

10) 은정희 역주, 「원효의 대승기신론소·별기」, 일지사, 1999(8판), p.57

11) “然既無有二, 何得有一。一無所有, 就誰曰心。” 은정희 역주, 上揭書, p.89

The Whole World is a Single Flower 세상은 한 송이 꽃 | 世界一花

글 : 해송¹⁾ / 사미니과(1학년)

Can I tell you about a flower?

When I was younger, I named myself “Yarrow” after the flower I came to love. Yarrow is a plant that grows even in the poorest conditions and doesn’t need much care. Although it’s not the fanciest flower, it is incredibly medicinal to both plants and humans. Its tea relieves fever and headaches, and its leaves can be chewed and applied to wounds to staunch bleeding. In gardens and farm fields, Yarrow attracts pollinators and repels common pests that cause plants around it to lose their essential oils, compromising their flavor and medicine.



At a young age when the ways of the people world were confusing and oftentimes disappointing, I was moved by Yarrow’s resilience, medicine, and unconditional generosity to life around it. Yarrow was the first plant that led me through the gate of what I call my personal 화엄 world. From there, my eyes were opened to lessons in impermanence, interdependent arising, and harmony amongst all differences.

Fast forward a few years, I get off a train in a state across the country from where I live and I’m on my way to meet my future 은사 스님 for the first time. The first thing I saw when we arrived at the temple was a flush of yarrow in full bloom under a persimmon tree heavy with fruit. The moment I saw yarrow, I didn’t even need to go into the temple. I knew if this teacher could grow and thrive here, I could, too. Maybe this was putting too much on the line at the sight of one flower, but if not for knowing Yarrow, maybe I wouldn’t be here today.



삼화_1학년 영주

꽃에 대해 이야기 하나 해드
릴게요.

어렸을 때 저는 스스로에게 'Yarrow'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좋아하는 꽃의 이름을 딴 것 이었죠. Yarrow는 서양톱풀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 자라고 손이 많이 가지 않는 들풀입니다. 그리 화려하지 않지만 약효가 뛰어나서 차로 마시면 열과 두통을 낫게 해주고, 잎을 썰어서 상처에 붙이면 피를 멈춰 주기도 합니다. 정원이나 들판에서 자라는 Yarrow는 나비나 벌과 같은 가루받이를 유인하고, 해충을 쫓아서 식물들이 그 정수를 빼앗기지 않게 도와 줍니다.

어린 시절, 사람들로 인해 혼란스럽고 실망스러울 때면 그 특유의 회복력과 약효, 그리고 주변의 다른 생명들에게 조건 없이 베푸는 Yarrow가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Yarrow는 가장 처음으로 제가 '나의 화엄 세계'라고 부르는 문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무상無常과 연기緣起, 서로 다른 것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 세계가 설하는 가르침에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뉴욕으로 미국 대륙을 가로질러 미래의 은사 스님이 되실 분을 만나기 위해 기차를 탔습니다. 사찰에 도착한 제 눈에 가장 먼저 띄었던 것은 바로 한 가득 열린 감나무와 그 아래 쏟아지듯 피어난 Yarrow 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절 안으로 들어갈 필요도 없이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나의 선지식, Yarrow가 이렇게 잘 자라는 곳이라면 나도 그러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요. 꽃 하나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했나 싶기도 하지만, 그 덕분에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1)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미국 국적의 한국계 스님, 한국어가 모국어인 스님들에게도 쉽지 않은 치문繼門을 배우고 있다. 이 글의 번역은 대경, 해숙, 명주스님의 도움을 받았다.



Now some more time has passed and I'm in another new place with a new name. I've traded in my dirty overalls for soft, gray clothes and my time climbing redwood and oak trees in the forest for life in the 총림²⁾ a different kind of forest with trees I'm still getting used to. But I trust the green path that led me here to the golden feet of Unmunsa's Buddha, where the 치문 trees I spend all of my time with emulate that same resilience, healing, and generosity that Yarrow first showed me. I can see it in the way we straighten each others shoes, fold each other's laundry when we're running late, brew hot tea for each other on cold days, and help each other with our classical Buddhist text translations. I can see it in the way we fight to be the first to apologize, the way we share everything we have, and talk through everything together no matter how trivial or grand the issue is. I'm making the familiar unfamiliar, the unfamiliar familiar with the help of my 도반, and I'm OK with my 화엄 world merging with the people world.

I think of the passage in The Flower Adornment Sutra, 華嚴經, 心佛及眾生。是三無差別 – which says, 'these three: the mind, Buddha, and all beings have no distinction.' In this way, the Buddha I see in Yarrow and all of my plant teachers is no different than the buddhas I live with now, nor is it different from me.

Do you know who lives around you, towering over your head or providing soft landing for your feet? Do you know whose leaves you sweep during 운력, whose roots, leaves, and fruit end up in your 밭우 bowls?

Here at Unmunsa, we live in a biodiverse bowl of mountains with all kinds of different people. It is our everyday backdrop and scene for the movie we call our lives. When we take the time to know who's around, the whole world becomes our 법당, and the landscape around us a 템화 of teachers and bodhisattvas. Thus I vow to continue my practice, until a mountain is just a mountain and a flower is just a flower.

2) 총림叢林: (i) Grove. In Buddhism, this term refers to a gathering of the sangha. (ii) A large temple or monastery – in East Asia, usually a Seon monastery. Especially in Korea, it is required to have a Seonwon/Seon Meditation Center [선원禪院], Gangwon/Sutra School [강원講院], and Yulwon/precept school/Vinaya school [율원律院]. In this text, this term refers to the first definition. 원래는 선/교/율이 모두 갖춰진 종합적인 수행·교육 도량을 칭하는 용어지만 여기서는 의미를 더 넓혀 여러 승려와 속인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을 나무가 우거진 수풀에 비유하는 것으로 쓰임.

이제 조금 더 시간이 흘러 저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낡은 멜빵바지 를 입고 삼나무와 참나무 숲에서 나무를 타며 시간을 보냈던 제가 이제는 부드러운 회색 옷을 입고 총림叢林이라는 익숙지 않은 또 다른 숲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운문사 부처님의 금빛 발 아래로 인도해 준 그 푸른 길을 믿습니다. 이 발 아래에서 저와 함께 자라는 치문 나무들, 우리 도반 스님들에게서 Yarrow가 처음 보여준 그 뚝심과 치유력, 너그러움을 봅니다. 댓글에 놓인 서로의 신발을 정돈하고, 시간이 모자란 도반의 빨래를 개어주고, 추운 날이면 차를 끓여 주고, 서로의 논강論講을 도와 주는 것에서 그 가르침이 보이며, 다투고 나서 먼저 사과하고, 모든 물건을 공유하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중대한 사안까지 함께 논의하는 모습에서 그 가르침이 보입니다. 도반들의 도움으로 익은 것을 설계하고 설은 것은 익게 해서 '나의 화엄 세계'가 사람 세계와 어우러지는 것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심불급중생心佛及衆生이 시삼무차별是三無差別이라, 마음, 부처, 그리고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다. 이렇듯 Yarrow와 초목 선지식들에게서 본 부처님들과 지금 저와 함께 살고 있는 부처님들, 그리고 나 자신 모두 다름이 없음을 봅니다.

당신은 우리 주변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누가 우리 머리 위에 우뚝이 있는지, 또 부드러운 걸음길을 드리우는지, 당신이 운력 중에 누구의 낙엽을 쓰는지, 누구의 뿌리, 잎사귀, 열매가 발우에 담기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곳 운문사에서 우리는 다양한 생명들이 가득한 그릇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인생이라고 부르는 영화의 배경이 됩니다. 누가 주변에 있는지 알아차리려고 정성을 들이는 순간 온 세상은 법당이 되고, 우리를 둘러싼 풍경은 선지식과 불보살님들의 팽화가 됩니다. 그렇게 저는 계속 수행을 이어 나가길 발원합니다. 산은 산, 꽃은 꽂이 될 때까지. ☺



불교의 문화콘텐츠 포교

- 창작자 양성을 중심으로 -

영원 / 대교과(4학년)



4년간 운문사 강원을 다니면서 안타까웠던 젊은 천년고찰인 운문사는 여러모로 대단한 원석을 지니고 있지만, 많은 현대인들에게 보석으로서의 가치를 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집반 때부터 화엄반에 이르기까지 음악, 동영상, 굿즈 제작 등 여러 시도들을 해오면서 포교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제 젊은 세대의 불자 유입과 잠재적 출가자의 출가 촉진을 위하여 이 글을 써보려 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종교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20·30대의 경우, 탈종교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출가자 자체도 대폭 하락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쁜 청년들은 종교도 여유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또 어느 세대보다 지쳐있는 이들은 불교로 마음의 위안을 얻고 싶어 하지만, 막상 할머니나 어머니가 다니는 종교라는 인식이 강해 다가오기 힘들다고 합니다.

불교의 교리, 세계관, 다양한 경전의 이야기들은 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옷을 입었습니다. 현 시대의 옷이라 할 수 있는 영상(숏폼, 유튜브, 영화, 드라마 등), 웹콘텐츠(웹소설, 웹툰), 음악, 게임, 공간콘텐츠(전시기획, 축제, 팝업 스토어 등)들은 문화콘텐츠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불교관련 콘텐츠들을 살펴보면 양은 늘어나고 있지만, 개인 크리에이터들을 통해 우후죽순으로 생기다 보니 내용의 부정확성, 편향성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생각한 문제는 콘텐츠의 생산입니다. 문화콘텐츠를 전문적이고, 구조적으로 생산해내고, 콘텐츠를 만드는 창작자들 또한 양성시키는 기관 혹은 기획사가 있게 된다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포교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불교용품점, 불교 굿즈, 애니메이션, 범문, 책 등의 다양한 문화콘텐츠들이 있지만, 제각각으로 각자도생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러한 원천콘텐츠가 다른 장르의 콘텐츠들과 연계되어 시너지효과를 낼 때 그 가치는 훨씬 높아집니다.

문화콘텐츠를 만드는 창작자를 구분해 보자면 문자기반의 1차 창작자, 미디어기반의 2차 창작자, 현물기반의 3차 창작자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차 창작자는 문자기반의 창작자입니다. 불교교리를 현대적인 언어로 스토리텔링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다양한 불교서적들이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출판되고 있으나, 조금 더 많고 다양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관의 역할은 1차 창작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리교육이라 생각합니다. 작가들을 불교 관련 공모전 등의 단발성 이벤트를 통해 작품을 제출하게 하는 것은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작가들을 대상으로 기초교리부터 시작하여 불교의 세계관, 각 경전의 핵심적인 부분과 스토리 등 다양한 자료들로 세미나 등 중장기적인 작가양성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교리에 대한 정확한 검증을 기관에서 담당해준다든지, 이렇게 양성된 작가들의 작품을 출판으로까지 이어지게 도움을 준다면 양질의 출판물들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2차 창작자는 미디어기반의 창작입니다. 이는 웹, 영상, 음악, 게임 등의 분야가 있는데, 먼저 웹분야의 창작부터 다뤄보겠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웹소설 시장은 6,000억원 규모, 웹툰 시장은 1조원 규모라고 합니다. 실제 15~49세 인구의 절반이 일주일 내 평균 4.6일 정도 감상하고 있을 정도로 웹기반의 콘텐츠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습니다. 이 콘텐츠의 세계관, 사상 등을 불교적이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판타지, 액션, 로맨스 등의 다양한 장르의 작품으로 창작할 수 있는 작가를 양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불교', '부처님' 등의 단어를 쓰지 않고서도 사람들에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불교의 핵심이 녹아들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웹분야 창작물을 게임분야로까지 확장시킨다면 포교할 수 있는 대상의 증이 두터워집니다. 요새 웹소설/웹툰이 게임과 연계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게임을 통해서라면 원하는 방향으로 결말을 맺을 수 있고, 마음에 드는 캐릭터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방식으로 놀 수 있는 장점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운영을 하는 게임에 불교적 특색을 입혀 약사여래불의 12대원 및 그와 관련된 스토리, 자비회사의 사무량심 등의 요소들을 첨가해서 캐릭터의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게임 콘텐츠를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

3차 창작자는 현물기반의 창작자입니다. 굿즈와 공간콘텐츠 분야를 현물기반으로 분류해보았습니다. 굿즈 분야를 먼저 다뤄보자면, '굿즈'는 특정인물이나 콘텐츠, 브랜드와 연관된 파생상품



설화_ 4학년 원경

입니다. 하지만 이 굿즈의 효용성은 그 안에 담긴 가치, 스토리가 있을 때 더욱 커집니다. 그렇기에 2차 창작물의 스토리, 캐릭터, 그들의 가치관 등을 굿즈에 담는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더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때, 기관에서는 신인작가들, 혹은 경력단절되었던 작가들을 위주로 굿즈 창작자를 양성한다면 이 또한 불교미술이 미술시장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커질 것이고, 그렇게 신라, 고려시대

처럼 정말 아름다운 불교작품들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의 토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코로나19 이후 이제는 온/오프라인공간이 각각 독립적으로가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로써 존재하여 '피지털(물리적 공간을 의미하는 Physical과 Digital의 합성어)'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체험이 연결될 때 그 시너지효과는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요즘 세대들은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소통은 물론이고 직접 경험하고 몸으로 즐길 수 있는 오프라인도 적극 활용합니다.

이러한 공간 트렌드에 맞추어 1, 2차 창작물의 배경이 되는 사찰들에 대한 오프라인 체험을 확대해야 합니다. 지금껏 해왔던 템플스테이, 명상프로그램, 산사음악회 등 공간 기반의 프로그램들을 변화시켜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쓰윽 둘러만 보는 관광이 아닌, '절'이라는 공간에 불교의 철학을 가시화시키며, 가치 있는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도심의 절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살롱문화, 팝업스토어 등의 형식을 이용하거나,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명상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참여하는 이들로 하여금 또 오고싶어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면 많은 이들에게 불교가 친숙해지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다가가려면, 현 시대에 맞게 그들의 고민, 그들의 니즈를 파악하여 맞춤형으로 충족시켜 주어야 합니다. 트렌드라는 것은 항상 그 시대를 향유하는 세대에 의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진행이 많이 되어있는 트렌드를 바탕으로 포교한다는 것에서 이미 뒤처진 감이 있으나 현 불교 내 문화콘텐츠의 현실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기에 부끄럽지만 거칠게나마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신심과 원력, 그리고 중생들의 좋아하는 바를 따라 갖가지 방편으로써 제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진 분께서 불교포교에 힘써주시기를 발원하겠습니다. ☩

아름다운
그대,
幻이여

인성 / 사미니과(1학년)



아름다운 그대여,
그대를 본 순간 숨이 멎는 줄만 알았습니다.

마치 나비가 꽃향기에 훌린 듯,
그대와 더 가까워지고 싶은 욕망에 눈이 멀어
좀처럼 그대를 놓지 못하였습니다.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좁혀지지 않는 거리는
제게 고통만 안겨 줄 뿐이었습니다.

고통의 높으로부터 빠져나오고자
저는 머나먼 여정을 향해 발길을 돌렸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을 헤엄치며
거친 바위가 매끄러워질 만큼의 시간이 흐르니
마침내 머무를 대상 하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그대, 환幻이여 ♪

재미있는 부처 이야기

혜월 / 제5회 법계문학상¹⁾ 수상자



여드름이 나던 소년기부터 독서와 교내 백 일장 같은 글짓기대회를 통해 조금씩 키웠던 작가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회향하게 될까 노심초사하던 중 법계문학상 공고를 만나 공모하게 되었다. 알고 보니 불모지와 다름없는 불교문학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유일한 등용문인 법계문학상이 제정된 지 한참 되었다. 먼저 경제적인 후원과 정성을 기울여 꿈나무를 길러내 오신 명성 큰스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불교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세 명만 꼽는다면 첫 번째는 불교를 창시한 교주 고타마 싯다르타다. 소승불교는 2세기쯤이 되었을 때 적잖게 변질 왜곡되었고, 종교개혁을 통해 대승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다. 이때 소승을 대승으로 바꾼 용수보살이 두 번째로 중요한 인물이다. 세 번째는 대승불교를 중국과 우리나라 일본 등의 동북아로 전교한 구마라습이다. 이번에 내가 쓴 『구마라습, 대장경 판각 속으로 가다』는 구마라습의 일대기를 조명한 전기 형태의 소설이다.

중국의 삼론종과 태고종, 화엄과 정토, 미륵신앙의 근간이 모두 구마라습이 제공한 이론적 논거를 통해 태동 발전하였고, 중국 선불교의 이론적 토대도 구마라습의 직계 제자였던 도생과 승조에 의해 마련된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 · 용수보살 · 구마라습으로 이어지는 가장 위대한 부처의 계보임에도 구마라습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불자들이 별로 없기에 널리 알려야 한다는 것이 그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을 쓰게 된 작의作意다.

344년 서역의 구자국서 출생한 구마라습은 3세에 빨리어 경전을 외우기 시작하였고, 7세에 출가, 9세에 불교 선진국 천축으로 유학하여 12

세까지 초기경전을 모두 머릿속에 넣었다. 12세에서 15세 사이에는 산스크리스트어로 된 대승경전을 공부하였고, 20세에 비구계를 받은 후 금사자좌에 올라 대승의 법륜을 굴리는 사자후를 토했지만, 5호 16국 시대, 후진의 수도였던 중국의 장안에 와서 역경 불사를 시작한 것은 세수 60이 되었을 때였다. 그사이에 겪은 법난法難과 17년 동안의 감금 생활은 동래한 서역 승 중 가장 참혹한 인욕바라밀忍辱波羅蜜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마침내 구마라습은 60부터 70까지의 10년 사이에 그가 어릴 때 머릿속에 넣어 두었던 빨리어와 산스크리스트어 경전을 모두 중국어로 번역하는 위업을 달성했다. 그것이 그대로 불교국 신라와 고려로 전해졌고, 대장경과 해인사 판각 속으로 들어와 오늘에 이른다.

만약에 훨씬 젊은 30~40대부터 번역을 시작했다면 양은 많을지 모르지만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지는 완벽한 경전 번역은 탄생시키지 못했을 것이다. 17년의 억류 생활 동안 중국어와 중국사상을 완벽하게 습득하였고, 이때 견성도 하였다. 우리는 그를 불세출의 천재로 기억하기보다 인욕바라밀을 통해 성도한 과정을 더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 그를 조명한 후에 내린 결론이다.

나는 소설을 쓸 때 재미도 있어야 하고, 많은 TV의 드라마를 짐작한 경험 때문인지, 가능하면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외국 지명과 등장인물의 이름이 생소하고 주제도 하드한 편이어서 독자들이 몇 페이지 읽다가 덮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책을 한번 펼치면 중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드는 장치를 구성과 내용을 통해 촘촘하게 엮어 넣느라 최선을 다했다. 페이지를 넘기는 흡입력은 읽으면서 촉촉하게 스며드는 감동에서 찾아야 한다. 읽고 나면 금방 잊지 않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감동을 위해서 술한 밤을 새웠다는 것을 부기附記해둔다.

옛날의 60살보다 지금의 70이 더 젊다. 나는 소설가가 되겠다는 생각을 15세 중학생 시절에 처음 했는데, 70이 된 이제야 그 원을 이루었다. 앞으로 10년 동안 나는 우선 구마라습의 열정을 그대로 재현할 생각이다.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은 노년의 뜨락을 지나는 중이지만, 앞으로 허락된 내 삶의 전부를 불교문학의 발전을 위하여 법계문학상을 제정한 분의 뜻을 기리는 금자탑을 쌓는 데 바칠 작정이다. 용기와 격려를 해주신 운문산문의 회주 명성 큰스님과 심사를 해주신 남지심 작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



1) 법계문학상은 운문사 회주 명성스님께서 불교문학의 발전을 위하여 제정하여 제5회에 이르렀다. 이번 수상작은『구마라습, 대장경 판각 속으로 가다』로 구마라습의 일대기를 기술한 장편소설이다.

숨 한 번에

대겸 / 대교과(4학년)

안녕하십니까, 화엄반 대겸입니다. 저는 '숨 한 번에'라는 제목으로 지난 4년간 주변에서 병고와 죽음을 접하면서 느낀 바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는 우선 저 자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출가할 무렵 제가 마주했던 가장 커다란 문제가 어떤 형태로 답을 찾아가고 있는지를 정리하는 마음으로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한번 들어 보시고, 이 생사의 문제에 대해 함께 사유하는 시간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방학 동안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손을 도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로서 '영적돌봄가'의 일을 보조하는, 즉 입원한 환자와 보호자 분들을 만나 뵙고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은 생의 마지막을 눈앞에 둔 환자들이 오는 곳입니다. 그리하여 제가 만나 봤던 환자들은 거의 침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대화로 소통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모두가 각처에서 각자의 삶을 살다가 이렇게 죽음을 앞둔 모습으로 누워 있는 분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다행히 부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영적돌봄가 스님께서는 제 손에 『아미타경』과 「보현행원품」을 들려 주셨고, 저는 여러 병실을 오가며 환자와 보호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선 눈을 감고 있는 분들께는 다가가서 깨어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저는 불과 몇 뼘을 사이에 두고 앉아 환자가 숨을 내쉬는 것을 봅니다. 숨이 빠져나와 가라앉은 몸이 그대로 멈춥니다. 1초, 2초, 3초, 4초. 제 눈은 미동도 없는 환자의 얼굴에 고정된 채, 칠나가 역겹이 되어 그 자리에 얼어붙습니다. ‘돌아가셨나?’ ‘내가 뭘 하면 되지?’ 그때 다시 환자가 숨을 들이쉽니다. 안도감에 작게 한숨을 쉬며 그제야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러면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여쭌 뒤 조심스레 운을 떼고 경전을 펼칩니다. 환자분이 즉각 알아들을 수 있도록 구간별로 강세를 다르게 주면서, 속도는 듣기 편하도록 천천히, 그러나 너무 단조롭지는 않도록 높낮이를 조절해야 했습니다. 신경이 온통 곤두서 있었던 건, 저는 무엇보다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들이 과연 환자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인가? 죽음이라는 사건이 눈앞에 현실로 도래한 이들에게, 이런 산 자의 몸부림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경을 그렇게 읽어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출가한 아래로 그렇게까지 집중을 해서 독송에 몰두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저는 어떻게든 경의 뜻을 온전히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읽고 있는 구절을 이해한 상태여야만 했기에 눈은 수시로 앞서가야 합니다. 재빨리 딱 필요한 만큼만 뒤의 글귀를 훑고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있자면 어느새 웃자락 사이로 땀이 흐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오직 빨리 외워서 끝내겠다는 기세로 『금강경』을, 『보현행원품』을 해치우듯 읽어내리던 시간들은 무엇이었나 하는 헛헛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환자분께 「보현행원품」 독송이 끝나고 여쭈었습니다. 눈도 못 뜨고, 목소리가 안 나와 소통이 안 되던 분이었습니다. “내용이 참 좋죠?” 하기가 무섭게, “네, 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어느새 눈물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그 방학 동안 놀랍고도 당연한 일이 계속됐습니다. 제가 제법 부처님 제자로서 할 법한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같은 환자를 다시는 못 보게 되는 일이 며칠에 한



번씩, 계속해서 찾아왔다는 것. 그날그날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일지에 기록을 남기고 병원에서 나오면, 저는 바로 방으로 들어갔고 밖으로 나오기가 힘들었습니다. 병실에서 들고 나는 숨 한 번에,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름방학이 가고 가을철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누워 있을 차례가 왔습니다. 끼니마다 한 줄씩 되는 처방약을 먹으며 숨 한 번 잘못 쉬었다가는 속이 뒤집힐 듯한 느낌에 끝없이 시달렸습니다. 어딘가에 엉거주춤 기대어 있자면 병원에서 만났던 환자들의 모습이 아른거렸고, 눕기라도 하면 내가 관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몸이 바닥으로 끼지는 것이 지대가 무너진다는 것이 이런 것인가 싶었고, 문득문득 나는 하나의 고깃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자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선가귀감』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몸은 조금도 탐을 내거나 아까워할 것이 없다. 하물며 백 년을 잘 가꾸어 기른다고 할지라도, 숨 한 번에 모든 은혜를 저버리고 마는 것이다.’ 숨 한 번에 이 ‘모든 은혜’를 저버릴 날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 있다’고 여기며 버티는 이 현실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사실 매 순간 죽음을, 그리고 생명이 사그라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숨이 한 번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 육신의 변화를 보면서.

출가하기 불과 몇 달 전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새벽의 한 응급실에서 황급히 여러 검진을 예약하고 텅 빈 복도에서 대기하던 중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 어떤 불치병이 진행되고 있어서 당장 오늘 죽는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겠다. 오히려 얼마나 자연스러울까.’ 저는 우주에 홀로 남겨진 듯한 느낌에 압도되었습니다. 형용할 수 없는 무상감, 허무와 조우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정신이 들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지금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전 호스피스 자원봉사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보다 이삼십 년은 연배가 있으신 동료 봉사자 분들과 함께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들의 몸을 씻기고, 주무르고, 처음 접하는 찬송가를 어설프게 따라 불렀습니다. 전부 죽음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익숙

해지기 위해서,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그 순간을 체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방학 중에도 그와 마찬가지로, 환자들을 위해 경진을 읽고 부처님 제자로서 할 법한 말을 골라내며, 결국 이번 생에 빌려 온 이 육신을, 정신을 들보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 작업은 지금도, 저라는 환자를 대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일아합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이를 돌보는 이는 곧 나를 돌보는 것이요, 병든 이를 간호하는 이는 곧 나를 간호하는 것이다.’ 간병의 공덕에 대해서는 익히 많은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련의 경험을 거치며 저는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간병의 공덕이 그리도 큰 이유 중 하나는 몸과 마음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무상, 고, 무아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됨이 아닐까?

한 시인은 말했습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 걸어가야겠다.’ 우리는 별과 우주와 진흙과 쓰레기와 같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죽어가는, 그리하여 살아가는 것에서 나의 존재를 보고, 또 그 ‘나’라고 할 만한 독립된 존재는 결국 없다는 것을 알고, 다만 수행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가는 것만이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합니다. 숨 한 번 들이쉬고 내쉬는 사이는 우주에 혼자 남겨지기에, 한 사람의 생명이 오가기에 충분한 시간이었고, 현실을 돌아가며 발심의 순간으로 돌아가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죽음과 마주하는 것은 저에게 있어 발심의 순간이었고, 그 발심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아픈 나 자신과 타인을 돌보며 죽음과 생명의 덧없음을 관하고, 또 생명의 희유함을 사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번민의 굴레에서 벗어나 생사를 자유자재로 넘나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와 자비를 구족하여 불보살님의 대행원력으로 삼계의 대도사로 거듭나기를, 그리하여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데 동참하시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





언제나 두 손 가득 선물을 받아 오는 곳, 죽림한



꽃보다 감사 스님 (봉어빵 대기중)



심기일전
心機一轉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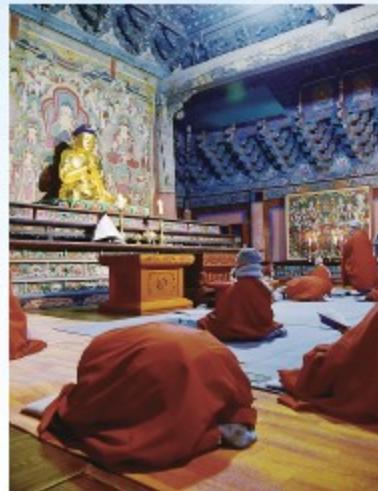
너무 맛있는 김장 김치, 자꾸 손이 입으로 가요



너무 뜨겁지도, 불씨가 끼지지도 않게
– 화대 스님의 得其中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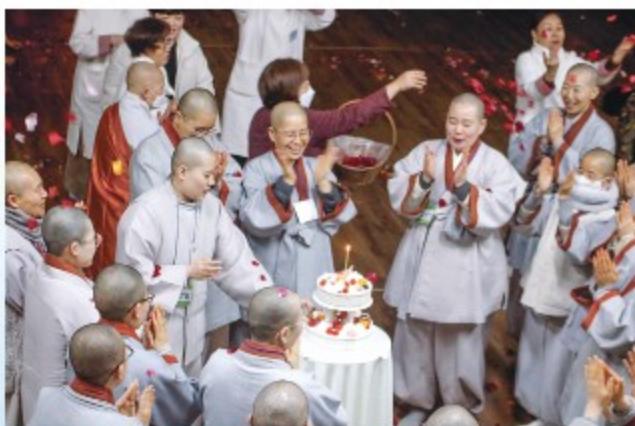
모 나와라!! 데시벨이 올라가고 있는 청풍료



철마정진도 함께하니 정진레벨 UP, UP



선화 전시회, 이걸 그린 분들이 우리 도반 스님들과 상반 스님들이라니



생사의 장 – 나쁜 입 다 날려버리고 다시 태어난 운문인 (feat. 식탐은못날림)



치문은 끝나가지만, 우리 초심初心은 그대로이길

『생각의 탄생』을 읽고

- 다빈치에서 파인먼까지 창조성을 빛낸 사람들의

13가지 생각도구 -

태감 / 한문불전대학원



누구나 생각한다.

하지만 누구나 똑같이 '잘'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각자 여러 가지 정신적 사고에 따라 다르다.

이 책은 흔히 천재들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에서 파인먼, 피카소, 헬렌 켈러, 마르셀 드뷔상, 크느그 와레예, 바흐, 마사 그레이엄,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물리학자·예술가·음악가 등 다양한 분야의 천재들이 생각하는 습관에 대해 상상력을 학습하는 13가지 생각 도구의 방법으로 관찰, 형상화, 추상화, 패턴 인식, 패턴 형성, 유추, 몸으로 생각하기, 감정이입, 차원적 사고, 모형 만들기, 놀이, 변형, 통합하기를 설명해 놓은 책이다.

첫 장을 보면 저자가 '창조적으로 생각하기'라는 제목으로 창조적 사고와 지식의 대통합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의 주요 내용은 "생각과 사고, 발견과 발명의 모든 것은 결국 실행이다."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사실 창작의 전제는 상상이지만 이 둘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창작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운 좋은 발견이 필요할지도 모르나, 이 발견을 온전히 현실화하는 것이 창작인 것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반드시 구체적인 형태를 지녔다고 할 수 없으며 실체를 가진다고도 볼 수 없다. 하지만 창작은 실행과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는 법이다. 고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 창조적인 상상이다. 그것만이 우리를 관념의 단계에서 현실의 단계로 나아가게 해 줄 수 있다고 이고르스트라빈스키의 '음악의 시학' 중에 나온다.

그리고 관찰은 모든 종류의 감각 정보를 활용하여 매우 놀랍고도 의미심장한 아름다움을 감지하는 능력을 말한다. 많은 현대 화가들은 '수동적 보기' 가 아닌 '적극적인 관찰'로 작품을 만들어낸다. 관찰은 후천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기술이므로 관찰력의 비밀은 시간과 참을성에 있다.

흔히 우리가 쓴 글을 보면 자신의 경험, 주변 사람, 사물, 추억, 독서 등을 자세히 관찰한 결과이다. 생화학자 스젠티 기요르기는 "발견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을 '보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했다.

우리가 무시해 버리는 감각자극을 이용할 수만 있으면 훌륭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관찰의 기술은 빠르고 예리한 식별력에 있으므로 '그냥 듣는 것' 이 아닌 '주의 깊게 듣는 것'에 집중하고 '경청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또, 감정이입의 본질은 다른 사람이 되어 보는 것이다. 물리적으로 합쳐져서 타자성(otherness)^o 사라짐을 뜻한다. 감정이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이 되어 세계를 지각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어찌면 글을 가장 잘 쓰는 사람은 진짜 글 속의 자신이 되는 사람일 것이다. 작가는 작중 인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상상력을 발휘한다. 따라서 문학적 소양은 감정이입을 익히기 위한 최고의 방법일 수도 있다. 양리 베르그송은 감정이입을 통해야만 가장 중요한 통찰에 이를 수 있다고 했으며, 칼 포퍼는 공감적인 직관 혹은 감정이입을 통해서 새로운 이해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이처럼 모든 음악가, 작가, 배우, 무용가는 자기가 맡은 역할에 몰입한다는 것이다.

『생각의 탄생』 중에서 놀이는 분명한 목적이나 동기가 없고 성패를 따지지 않으며, 결과를 설명해야 할 필요도 없으므로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도 아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상징화되기 이전의 내면적이고 본능적인 느낌과 정서, 직관, 쾌락을 선사하는데, 바로 그것들로부터 창조적인 통찰이 나온다. 그래서 놀이는 우리 자신만의 세계와 인격, 게임과 규칙, 장난감, 퍼즐을 만들게 하여 지식을 변형시키고 새로운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 새로운 과학과 예술이 가능해지며 일을 즐기고 놀이와 구분이 없는 경지에 output이 나온다는 요지라 할 수 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재미있는 것은 몸을 쓰는 일을 늘려야겠다는 생각과 오감을 모두 활용하자는 생각, 그리고 더 많이 놀자는 생각이 든다.

특히 스스로 판단할 때, 나는 텍스트 중심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편하고, 선형적인 생각을 한다거나 논리구조가 트리구조인 것에 익숙하여 정보가 분산되며 입체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할 때나 시간과 공간 등이 복합적으로 얹혀 공감각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 자신이 다소 위축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된다. 근데 요즘에는 구조적으로 논리적인 트리형 사고방식보다는 IBM 컴퓨터 같은 방사형, 나열형, 그물망형 등의 정보들이 터미널과 바로 1:1 구조를 이루는 사고방식인 MAC PC처럼 오히려 오픈된 정보 속에서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시대임을 공감한다.

미시건주립대학 생리학과 교수인 로버트 루트번스타인과 역사학자인 미셸 루트번스타인이 쓴 『생각의 탄생』 표지를 보는 순간 머릿속으로 스쳐 들려오는 속삭임은 호기심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상, 사색하며 그려보는 것을 생각하다가 ‘탄생’이라는 단어가 이 책을 몇 달 동안 하나씩 천천히 읽게 해 주었다. 사실 이 책을 보면서 상상력을 학습하는 13가지 생각의 도구를 떠올리며 사색하고 상상하여 그려보는 것을 생각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생각이라는 것이 다양한 사고의 활동들이라는 것을 깨우치게 되었다. 그전에 『생각의 시대』라는 책을 읽으면서도 참 재미있었는데 이 책은 더 구체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었다.



“내가 본 꽃을 그대로만 그렸다면 아무도 내가 본 것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꽃이 작은 만큼 그림도 작게 그렸을 테니까 말이다.” - 화가 조지아 오키프

“나는 보고 들을 수 없었던 것들과, 맛, 냄새, 느낌으로 알았던 것들 사이에서 ‘수많은 연상과 유사성’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 사회복지 사업가 헨렌 켈러 *



청풍료에 입방한 날이 기억납니다. 직접적인 시선은 허락되지 않았지만 보고야 말았습니다.

한 지붕 아래 한 방에서 1년을 함께할 사집반 스님들의 진한 장군의 카리스마를요. 상반 스님들께서도 귀여운 신입생들을 기대했다고 들었습니다만, 여하튼 이렇게 맺어진 저희의 인연은 어느새 만 3년이란 세월을 채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저희는 앓고 서고, 옷을 입고 벗는 법 등 기본 중 기본적인 습의를 받았고, 청풍료에서 먼저 1년을 살아남은 상반 스님들이 주시는 꿀팁들을 한 방울 한 방울 받아먹으며 강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쓴소리도 가끔 있었지만, 다 무엇보다 귀한 관심과 애정이요, 그런 긴장감이 없었다면 지금의 사교반이 이렇게 있을 수 없었음을 지금은 알 수 있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성이 워낙 특출난 데다 다양한 분야에 재능을 뽐내던 화엄반 스님들.

그 끼를 아끼지 않고 부처님 법을 시대에 맞게 전하는 데에 쏟아붓는 열의는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어떤 상황에도 신심으로 개인 기도와 공부에 절대 게을리하지 않던 상반 스님들의 모습은 저희가 반드시 본받아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방학 후 귀사하면 언제나 해맑게 웃으며 손 흔들어 주시던 모습, 잔뜩 긴장한 채 지나가면 꼭 장난치며 웃게 만들던 애정어린 관심, 금당으로 떠나기 전에 “이사 가고 나면 우리 보고 싶을 걸요?”라고 미소 짓던 상반 스님, 벌써부터 그립습니다.

이번 한 해 말 안 듣는 이 동생들을 데리고 새로운 강원을 만들어 내느라 정말 근념하셨습니다. 덕분에 조금 더 가까워진 행복이 저희를 더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 수 있도록 남은 저희끼리 이 길을 이어 가보겠습니다.

겨울입니다. 많이 춥네요. 언제 어디서든 무엇보다 건강하게 정진하시고, 같은 부처님의 제자로서, 같은 운문사 졸업생으로서 곳곳에서 저희의 귀감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졸업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

그대들은 비행기를 타고 인도를 잘 다녀왔구려!

서목 / 대교과(4학년)

대교반은 '제60회 졸업여행'으로 인도 성지를 순례하였습니다. 1,300년 전 신라의 혜초慧超스님은 723년에 바닷길로 시작하여 7년간 인도의 불교 성지와 중앙아시아 등을 다니시고 실크로드 중 파미르 고원¹⁾을 넘어 중국 장안에 도착하셨습니다. 험난한 길에서 흘리신 눈물을 통해 위법망구爲法忘軀의 고단함을 표현한 시²⁾, 몇 구절을 읊어 봅니다.

道荒宏雪嶺 險澗賊途倡 길은 거칠며 정상에는 대설 쌓였는데 험한 산골에는 도적이 많구나!

鳥飛驚峭巒 人去難偏櫟 새는 날다가 산 높이에 놀라고 사람은 외나무다리 겨우 넘누나!

平生不捲淚 今日灑千行 평생에 눈물 흘려본 적 없건만 오늘 천 줄기 눈물이 볼을 적시누나!

2023년 10월 말 저희는 부처님께서 출가 길을 떠나시듯 달빛, 별빛 아래 해탈문을 나섰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비행기는 저희를 7시간 만에 인도로 보내 주었습니다. 저희에게는 바다의 태풍, 모래바람 속 해골이 지표가 되는 방향, 내장이 불타는 뜨겁고 목마른 길, 고독한 여정, 수많은 경전 운반 일 등이 없었습니다. 개인 짐도 여행 가방 바퀴가 가볍게 옮겼습니다. 인도 도착 후 소소한 불편은 있었지만 70년대 한국 같은 마을 모습에 촉촉한 눈빛이 되었고, 부처님의 성지에 발자국을 남긴다는 가슴 벅찬 마음으로 다녔습니다. 병고자가 많아 여행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9월부터 세심히 준비하고 어른 스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지원해주신 덕분으로 여여하게 순례했습니다. 15일간 맑은 날씨에 인솔

둘비니동산 마야데비 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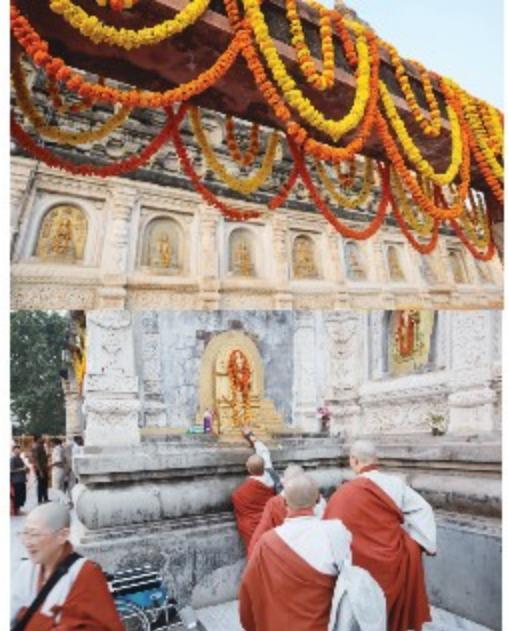


자 스님은 복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8C 혜초스님의 여정에 견주면 얼마나 안전하고 편하고 빠른 길인가요! 21C 성지순례를 보시게 된다면 어떤 생각을 하실지 자못 궁금해집니다.

첫 방문지인 사르나트에서는 오비구와 초전법륜 법문을 떠올렸고, 갠지스강에서는 금강경 속 항하사 모래도 만졌고, 방생도 했습니다. 마하보디 사원에서는 시성정각始成正覺하신 곳 보리수에서 금강경을 독송하였고, 묘법연화경 설법지 영축산에서는 강한 햇살 아래 법화경 기도를 했습니다. 나란다 대학에서는 그때 재학

했다는 도반의 개그가 있었고, 비구니 출가 승인처 바이살리 대림정사에서는 붉고 아름다운 노을 속 늠름한 아소카 석주의 사자 한 마리도 보았습니다. 쿠시나가라 열반당에서는 와불臥佛에 가사 공양을 올렸고, 기원정사에서는 부처님의 숙소인 '간다꾸띠' 앞에서 금강경을 독송하며 공성을 사유했습니다. 탄생지인 네팔 룸비니 동산에는 부처님의 아기 때 발자국이 있었고, 카트만두의 성지 입구에는 간병하는 부처님 벽화도 있었습니다. 성지마다 막내 스님의 목탁 소리에 엄마뻘인 제가 선창하고, 후창하는 도반 스님들의 불심 짙은 삼귀의와 사홍서원, 또 탑들이 정근 시간은 아주 감동스러웠습니다. 초심 살린 인솔 스님의 발원문 합송과 열성 어린 찬불가 제창 등으로 한국 예비 비구니로서 성지를 장엄하고 왔습니다. 비밀 아닌 비밀! 故 운산 학장 교수 스님께서 기도 성취를 많이 보셨다는 마하보디 사원 '따라보살' 님! 정면에서 우측 첫 부조인데, 저희는 탑들이 때 스님을 떠올리며 보살상에 손 내밀고 저두를 올렸습니다. 무슨 소원을 빌었을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가사의 힘인지 치치마다 다른 나라 스님과 신도 분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스님들께 보시를 올리고 마음으로 환영의 뜻을 보냈습니다. 동방아와 가사 차림의 저희를 보고 "와, 이 드레스는 뭔가요? 헤어스타일도 특이하네요?", "아주 아름다워요, 당신들은 누구인가요?", "와! 코리아에서 왔나요? 같이 사진 찍어도 되나요?" 등의 멘트를 받으며 많은 사진을 같이 찍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학생 스님이고 부처님의 딸 샤키타Sakyadhita라고 알려 주었는데 어떤 이는 알아듣고, 어떤 유럽인들은 생소한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스님이라는 당연한 인식이 상황에 따라 설명이 필요한 작금이 재밌기도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 한반도도 인도에서 성인이 나셨고,



마하보디대탑, 따라보살님

1) 파미르 고원은 '세상의 지붕'이라 불리며, 평균 해발이 3,500m~4,500m이다.

2) 제목: 逢漢使入蕃 略題四韻取辭 봉한사입번 익제사운취사, 고승高僧 혜초의 『往五天竺國傳』에 실려있다.

혁명적인 불법을 실천하고 계셨으며 45년간 많은 이들을 행복으로 이끄셨던 현실에 대한 자료가 없었음이 생각났습니다.

쿠시나가라에서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다비하신 직후 구전 법문은 1차 결집을 거쳐 이어오다가 3, 4차 결집 때 드디어 문자로 패러다임을 바꾸게 됩니다. 봇다 적멸 후 500년 경인 이때는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인이 인도

에 온 시기이기도 합니다. 실크로드가 있어 중앙아시아에 인도불교가 전파되고 중앙아시아의 불교가 중국에 먼저 유입되었습니다. 마명, 용수, 법현, 구마라집, 세친, 무착, 불타발타라 등 뛰어난 스님들의 불전이 중국에 전해졌으며 한역漢譯 작업이 번성해졌습니다. 그리하여 한반도에도 불멸佛滅 900년 후부터 불법이 성행하려고 꽃봉오리를 맺습니다. 삼국시대에는 사찰 내에 강당을 짓고 강원의 시작인 경학이 강설됩니다. 열반 1,100년 후 신라 557년 진홍 대제 때 드디어 운문사가 창건됩니다. 서서히 불전들이 쌓여가다가 불멸 1,500년이 지나서 고려대장경이 완성되고 2,000년이 지난 조선왕조에서는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십니다. 이런 인연들이 만개하여 불멸 2,500년 후, 운문사 대교반은 교수 스님들께서 한글, 한문으로 가르쳐 주시는 대승 불법을 배우고 그 환희의 근원지를 찾아 인도로 날아갔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한 불법의 이어짐에 수희 찬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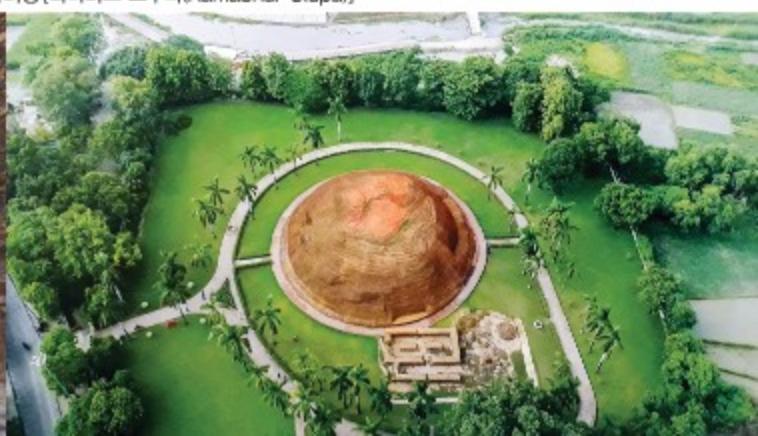
부처님께서 성도 후 남섬부주를 떠나려 하실 때 간곡히 '설하여 주십시오!', '설하여 주십시오!', '설하여 주십시오!'라고 법을 청한 범천왕, 불심을 석주와 84,000개의 사리탑으로 만드는 실행력을 보이신 아소카왕, 목숨을 건 역대 구법승들의 기행紀行, 부모님께서 주신 육신, 비행기를 만든 라이트 형제, 이 시대에 석유가 된 공룡, 한역 사업에 몰입양면으로 지원한 중국 왕 등등이 있으셨고, 세종대왕께서는 한글을 창제하시고, 신미대사信眉大師 등의 도움으로 최초의 불서佛書 '석보상절釋譜詳節'³⁾을 만드셨고, 세조는 '간경도감刊經都監'⁴⁾을 세워 주요 불전을 국문으로 번역, 출판, 반포하셨습니다. 그



간병하는 부처님

석보상절

부처님 열반 7일 후 다비식을 치른 다비장[라마바르 스투파(Ramabhar Stupa)]





대림정사



기원정사

래서 AI의 위협을 예방하자는 국제회의를 하는 현대 침단 시대까지도 불서가 보급되어 많은 사람이 불교의 근본이념과 교리를 쉽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이아몬드와 금이 비처럼 내려도 부처님의 사구게 하나 수지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일까요? 탐진치의 쳇바퀴에서 나오도록 끌어주신 스승 스님, 감사합니다! 20년 복덕 마일리지를 남기시고 80세에 열반에 드신 부처님께 삼배 올립니다! 화주 스님, 주지 스님, 율주 스님, 강주 스님, 학장 스님 이하 모든 운문사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와의 첫 인연으로 든든한 인솔 스님을 해 주신 송운 교수 스님, 고맙습니다! 대교반이 없는 운문사를 온몸으로 지킨 후배 스님들, 고맙습니다! 후배 스님들도 인도 성지에서 확인으로서 가사를 수하고 도반들과 기도 올리는 단 한 번뿐인 이 기회, 꼭 경험하기를 권해봅니다. 이 순례길의 수많은 감동을 불가설 불가설 불찰미 진수에 회향합니다. 감사합니다. _0_ :

운문사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는 VLog

성지순례 6편

성지순례 마지막편
인도.네팔

대림정사 석주

3) 최초로 한글로 편찬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와 주요 설법 전 24권, 세종의 명으로 소현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수양대군에 의해 한글 동활자 韓活字로 최초로 인쇄되어 보급된다.

4) 세조7년(1461)부터 약 10년간 능엄경, 법화경, 금강경, 원각경 등 불경을 국역, 간행을 담당한 관서.

대중 스님들은 화합하십니까?

아름다운 깊은 산속, 청정한 땅에 맑은 존재들이 모여 살고 있는 이곳, 운문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 세속을 떠난 자들의 거처이자 수행공동체다.
 '승가僧伽'라고 불리는 이 집단은 그냥 여러 존재들이 모여 사는 것과 어떤 점이 다를까?



'승가僧伽'는 산스크리트어 '상가(samgha)'의 음역으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로 연합된 단체를 일컫는 말이다. 보통은 출가 수행자들의 교단을 뜻하고, 화합대 중和合大衆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외국에서 흔히 갓 독립한 대학생들이 집세의 부담을 나누기 위해 같이 사는 형태를 '하우스셰어링(House Sharing)'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경제가 어려워지고 주거비용이 치솟다 보니 근래에 주목받고 있다. 보통은 주거비용을 절약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는 점점이 전혀 없는 사람들끼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부분을 공유하다보니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다. 부엌이나 화장실 등 공유 공간 사용법, 청소, 쓰레기 배출 등 생활습관이나 가치관이 다르면 함께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부처님 당시 꼬삼비에서 있었던 화합할 줄 모르는 비구들의 일화도 이런 동거 중 겪게 되는 갈등을 보여주는 예이다. 계율을 가르치는 한 울사 스님과 교학을 가르치는 한 강사 스님의 다툼은 화장실에서 사용하고 남은 뒷물을 버리지 않고 그냥 나온 강사 스님의 한 번의 실수로 시작된다. 결국엔 각자의 제자들과 스님들을 후원하던 신도들까지 두 과별로 갈라지게 하고, 지상에서 하늘의 범천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부들이 다툼에 동화된다. 이를 전해 들은 부처님께서는 세 번에 걸쳐서 이 비구들을 훈계하시지만, 그래도 화해하지 않는 비구들을 두고 홀로 안거를 떠나신다. 부처님을 떠나게 한 승가의

분열에 실망한 재가신도들은 스님들께 올리던 공양을 중단했고, 그제서야 비구들은 서로 참회하며 화해를 하고 부처님을 다시 모셔 온다.

이때 이들을 위해 부처님께서는 승가가 청정하고 화합하기 위해 잘 지켜야 하는 여섯 가지, 육화합六和合을 설하신다.

첫째, 신화동주身和同住 - 몸으로 화합하여 함께 머물고,

둘째, 구화무쟁口和無諍 - 입으로 화합하여 다툼이 없으며,

셋째, 의화동사意和同事 - 뜻으로 화합하여 함께 일하고,

넷째, 계화동수戒和同修 - 계로써 화합하여 함께 수행하며,

다섯째, 견화동해見和同解 - 견해로 화합하여 함께 이해하고,

여섯째, 이화동균利和同均 - 이양을 고르게 해서 균등하게 나눈다.

지금의 우리는 어떠한가? 같이 모여서 살고 있지만,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살고 있는가? 말투는 부드럽고 자비롭지만 내용으로는 상대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적은 없을까? 훌륭한 말솜씨로 도와 주는 척하면서 상황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있지는 않을까? 상대의 의견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있는가? 모든 규칙을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가? 아무리 좋은 결정이더라도 모두가 동의든 부동의든 할 기회는 있었던가? 내가 받았다고 보시받은 공양 물을 같이 사는 대중과 나누지 않아도 되는 걸까? 누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좋은 것만 갖고, 누구는 병원비 낼 돈도 없어 아픈 몸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가?

화합하지 못해 겪고 있는 불편함과 불만은 각자 스스로에게 그 책임이 있다. 욕심을 버리고, 계율을 잘 지키며, 효율성에 대한 생각이 달라도 차서를 지켜 웃 사람의 뜻에 잘 따르고, 내 몸 하나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 우주법계에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서슴거리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행하기, 이것만 된다면 우리는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네, 화합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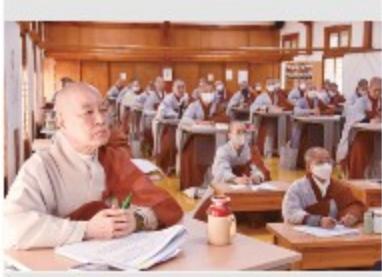
언젠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에 다투고

지혜로운 이는

잘 일기에 다투지 않는다.

- 법구경 계송 6 ☺



▲ 등현스님의 초기불교와 대승불교 득강



▲ 겨울철 포설



▲ 제야의 종



▲ 마하보디교육원 생사의 장



▲ 사집반 자비참 기도

운문소식

- 11월 27일 동안거 결제 제사 및 겨울철 개학공사가 있었습니다.
- 11월 28일 ~ 30일 김장 대중율력이 있었습니다.
- 12월 5~7일 고운사 화엄승가대학원장이신 등현스님의 초기불교 & 대승불교 특강이 청풍료에서 2박3일간 있었습니다.
- 12월 8일 대중포살이 은광 학감 스님을 단주로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대학원, 화엄반 스님들의 졸업사진 촬영이 있었습니다.
- 12월 13일 법공양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12월 15일 운문사 회주 명성스님을 모시고 제5회 법계문화상 수여식이 선열당에서 있었습니다.
- 12월 17일 오백나한 백일기도 회향식이 오백전에서, 이어서 청풍료에서 원묘 교수 스님의 회향법문이 있었습니다.
- 12월 20일 ~ 24일 동지 휴강이 있었습니다.
- 12월 27일 회주 스님의 94회 생신연이 약야계 다실에서 있었습니다. 회주 스님께서는 대중 스님들에게 선물과 공양금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 12월 28일 청풍료에서 겨울철 중간 죽비 전달이 있었습니다.
- 12월 29일 겨울철 첫 자자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12월 31일 저녁예불 후 송년 대중 윷놀이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이어서 비로전에서 철야정진과 종각에서 제야의 종 33타가 있었습니다.
- 1월 1일 새해 떡국마지와 항수해례 및 통일이 대웅전에서 있었습니다.
- 1월 5일 ~ 10일 정토마을 자제병원에서 진행된 호스피스 교육에 학인 스님들이 참가했습니다.
- 1월 13일 ~ 15일 사집반 스님들의 자비참법도량 기도가 2박3일간 비로전에서 있었습니다.
- 1월 18일 부처님 성도재일을 맞아 철야정진이 청풍료와 금당에서 있었습니다.
- 1월 25일 제12회 운문사한문불전승가대학원, 제60회 승가대학 졸업식이 청풍료에서 거행되었습니다.
- 1월 28일 겨울철 종강을 하였습니다.
- 1월 29일 신임생 예비소집 및 면접이 있었습니다.
- 1월 30일 겨울철 마지막 자자 및 방학공사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1월 31일 48일간의 겨울방학이 시작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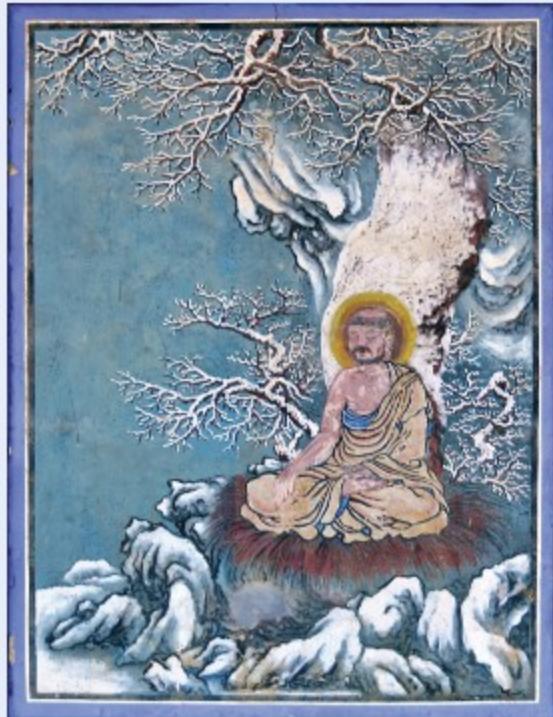
도와주신 분

- 법계사 자광스님 • 26회 동언스님 • 39회 도영스님
- 정해옥 • 조서명 • 박영준 • 김성옥 • 장근실 • 김현주 • 하옥희
- 박문주 • 강동혜 • 신현섭 • 조창래 • 이재명 • 권미숙 • 신영근
- 이창희 • 권현숙 • 이만영 • 한옥수 • 김상달 • 최희영

※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운문」誌 발간에 도움을 주신 분은 아래의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체국 701839-01-000335, 예금주: 운문편집실)

* 주소가 변경된 분은 문자로 다음 정보를 보내 주십시오, ☎ 010-7403-7118
①이전 주소 ②바뀐 주소 ③수령인 ④부수



운문사 비로전 벽화

설산수도상 雪山修道相

“내 만일 무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을 성취하지 못하면
이 자리에서 결코 일어나지 않으리라.”

* 「자유기고」에서는 전국 학인 스님들의 글을 받습니다.

* 「호거산 운문사」에서는 운문지 독자 후기, 운문지에 관한 에피소드 등 독자의 소리를 기다립니다.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운문사에서 사리암 기도영험록을 제작합니다. 사리암 나반 존장님 기도를 통해 가피를 얻은 불자님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054)372-8800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교육시스템,
다양한 학인복지 지원의 명실공히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비구니 교육수행도량!
운문사승가대학에서는 2024학년도 신·편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운문사승가대학 신·편입생 모집



- 모집 대상** 봄 수계예정자 및 사미니·비구니 스님
제출 서류
-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 은사 스님 추천서
 - 본인 사미니증(승려증) 사본 및 은사 스님 승려증 사본
 - 증명사진(장삼·만의 착용) 2매(3×4)
- 모집 기간**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 18일까지
(우편, 전화, 방문 접수 가능)
- 전형 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
예비소집일 2024년 1월 29일(음력 12월 20일) 오전 7시
특전 » 성지순례비 지원
• 서광스님과 함께하는 수행자를 위한 명상프로그램
MSC(mindful self-compassion)

운문사승가대학 학장 영덕

운문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 신입생 모집



- 모집 대상** 2024년 봄 구족계 수계예정자 및 비구니 스님
제출 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 수행이력서
 - 승려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 기본교육기관 졸업(예정)증명서
 - 증명사진 2매(3×4)
- 모집 기간**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 18일까지
전형 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
준비 물 가사, 장삼, 승려증
전형 일시 2024년 1월 30일(음력 12월 20일) 오전 10시
특전 » 해외연수비 지원
• 보건복지부인증 명상심리상담사자격증과정 개설

운문사한문불전대학원 원장 명성

* 신·편입생 모집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054-372-8800, 370-7100)와
운문사 홈페이지(www.unmunsa.or.kr)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雲門寺僧伽大學

38368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 雲門寺 / 편집부 (054) 370-7139 / 종무소 (054) 370-7100 / <http://www.unmunsa.or.kr>

[운문·개간] 거울호·통권 제166호·2024년 1월 30일 발행·등록 1995년 3월 29일·등록번호 경북 바-01008 / 발행처·운문사승가대학 / 발행인·명성(전임호)
고문·원법·편집·운문사승가대학 편집부·편집장·혜건·편집위원·덕운, 혜석·사진·편집부·표지사진·혜건·편집디자인·디자인미루 (053)426-3395